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SEP 24 1982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35 1982년 9월 23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hursday, September 23,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알비브레스토랑폭파사건 관련

문지식에 징역 5년

캐나다 압송 3일만에 선고

대통령 암살혐의자 야노버, 제롤도 공범

캐나다로 압송된 토론토 교포 문지식씨가 20일 상오 온타리오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80년1월의 영·스트릿과 블루어스트릿의 알비브 디스코클럽 폭파사실을 시인, 5년형을 받고 돈제일(Don Jail)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문은 앞으로 킹스톤교도소로 이감된다.

사건을 수사중인 특별합동수사반은 문씨이외에 재판과정에 있는 전대통령 암살음모및 사기혐의자 찰스·야노버와 마이클·제롤을 추가 체포, 재판에 회부했다.

한국에서 밀수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문은 지난 17일 뱅쿠버에서 캐나다경찰(RCMP)에 인도, 레스토랑폭파 혐의로 즉각 체포됐다.

토론토에 압송되자 마자 특별수사반에 의해 기소된 문은 20일 재판 첫날 검찰이 제기한 위험물 폭파사건 재판에서 변호인도 없이 모든 공소사실을 시인 5년형을 선고받았다.

토론토경찰 특별수사반은 문의 유죄판결과 함께 공범 찰스·야노버(36)와 마이클·제롤을 체포하고 이 사건의 주모자로 알려진 「알비브」클럽의 주인 헤롤드·알비브씨를 수배했다.

전대통령암살음모사건을 수사하던 특별수사반은 당시 한국에 붙잡혀있던 문이 한국경찰에 이 레스토랑폭파사건을 언급한데서 사건의 단서를 잡았었고, 사건의 전모를 모터사이클 갱단 「아웃 로스」의 두목 프랭크·랜티로부터 제보받아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알비브클럽 폭파사건은 전대통령암살음모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수사반의 샌멜리형사가 메트로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를 전담하고 있어 이 두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이면서도 야노버와 제롤이 두 사건에 개입됐고 한국계교포와의 공모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지난 4월 한국에 출장, 수사했던 샌멜리형사는 21일 "암살음모사건을 수사중 이사실을 알았다. 문이 암살음모사건과 관련된 증거는 아직 없다"고 본사에 밝혔다.

야노버와 제롤의 보석청원재판은 23일 열린다.

한편 문의 체포 소식을 들은 블로아의 교민 모씨는 "그 친구가 평소 큰소리를 쳐왔고 디스코클럽폭파사건은 자기가 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문은 부인과 아들 하나를 두었으며 문의 어머니등 가족은 현재 토론토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서 모 경영대학을 중퇴한 것으로 알려진 문은 81년6월12일 한국에 입국, 9월16일 관세법위반혐의로 한국경찰에 체포됐다. 74년 5월 냉동기술자로 캐나다에 이민. 78년5월 캐나다 시민이 됐다.

문은 또 80년 7월부터 9월까지 무역차 중공, 홍콩, 마카오, 광동등지를 다녀오기도 했다.

◆5년형을 받은 문지식

알비브폭발사건이란? 보험금노린 조직범죄

80년 1월9일 새벽5시7분 토론토의 영·스트릿 근처와 블루어·스트릿·웨스트의 알비브(Arviv)디스코·클럽에서 강력한 폭발물이 터져 이 건물이 있던 3층 건물이 완전폭파되고 유리파편이 수백야드밖까지 날아간 사고가 있었다.

이때 부상자는 하나도없었다.

경찰은 범인을 체포하지못했으나 보험금을 노린 조직범제단의 소행으로 짐작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뉴욕 디스코 클럽「스튜디오·54」를 본떠 만든 이 클럽 주인은 해롤드·알비브 였다. 알비브씨는 이상하게도 또 다른 25만 달러 협박 사건에 관련, 재판을 받고있는 5명중 하나였다.

부호 잭·매만씨를 협박, 25만 달러를 뺏으려던 이들중에는 유명한 모터싸이클 갱단「아웃로스」의 토론토두목 프랭크·랜티 도 끼어있어 더욱 주목을 끌은 사건이었다.

그후 폭발사건을 잘아는 인물로 알려진 아놀드·드레이크씨가 1개월후 몬트리얼에서 소포를 뜯다가숨겨진 폭발물로 즉사,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 627 Bloor St. W. 533-8593

◆80년1월9일 새벽 5시 알비브 디스코·클럽겸 레스토랑이 폭파되었다. 호화스런 실내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경찰과 보험조사원들이 알비브 레스토랑 내부를 조사하고 있다. 알비브는 뉴욕의 세계적 클럽「스튜디오 54」를 본따 만들었다.

정경화 27일 토론토에

29, 30일 토론토 심포니와 협연

한국계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양이 토론토·심포니와의 협연을 위해 27일 토론토에 온다.

새 로이·톰슨홀에서의 이번 공연은 29일(수), 30일(목) 저녁8시에 시작되며 지휘는 토론토 심포니 상임지휘자인 앤드류·데이비스가 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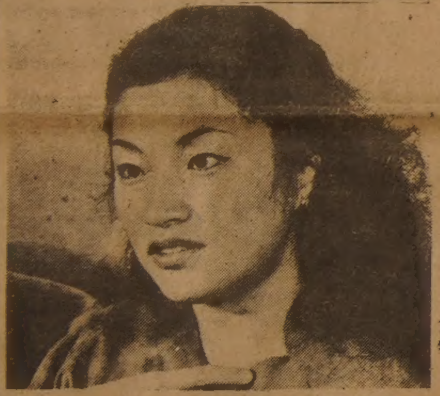
연주곡목은 모짜르트 심포니 NO.41 K551 〈주피터〉, 랄로(Lalo)의 스페인교향곡, 프리드만(Freedman)의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이며 이중 프리드만곡은 세계 초연이다.

지난 16일 예매가 시작된 정경화연주회 티켓은 판매성적이 좋아 서둘러 사지않으면 구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22일 토론토 심포니측이 밝혔다.

티켓은 좌석에 따라 $11, $15, $18, $22, $25씩이며 전화문의는 593-7769, 598-3375로 하면 된다.

정경화씨와 함께 금년시즌 토론토·심포니와 공연 스케쥴에 포함된 동생 명훈씨의 로이·톰슨홀 연주는 10월20일과 21일로 예정돼 있다.

토론토·심포니를 객원지휘할 명훈씨는 하프주자 쥬디·로만과 함께 코달리의 〈갈란타〉무곡, 하이든의 하프협주곡 D장조, 프로코피에프의 교향곡 6번 작품 111번을 연주한다. 티켓은 $25.00, $22.00, $18.50, $11.00, 예매는 10월16일부터 시작된다.



◆한국이 자랑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씨.

「4해항공」서울취항 취소

한국정부서 승인안해

토론토-서울간에 왕복 1,074달러라는 값싼 요금을 내걸고 선전하던 중국계 항공노선이 취소됐다.

이 노선을 계획하던 사해항공(Four Seas Airline)은 한국정부가 김포공항 이착륙허가를 승인안해 서울노선을 포기하고 대만, 홍콩과 캐나다 각 도시를 연결하는 노선만 운행한다.

사해항공 토론토사무소 대변인 제니스여사는 "한국정부의 반대로 서울운행을 포기했다. 내년봄쯤 운항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Merrill Lynch Royal Securities Ltd
금·은·증권·Bonds·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 : 감상욱
CANADA SAVINGS BOND는 언제나 현금으로 찾을수 있는 가장 안전한 투자대상이 된다. 이는 매년 가을에 한번씩 발행되며, 작년에는 주문이 폭주하여 마감일을 앞당겼읍니다. 저희는 이의 구입에 일체의 수수료를 부가하지 않고 모든 문의에 무료로 봉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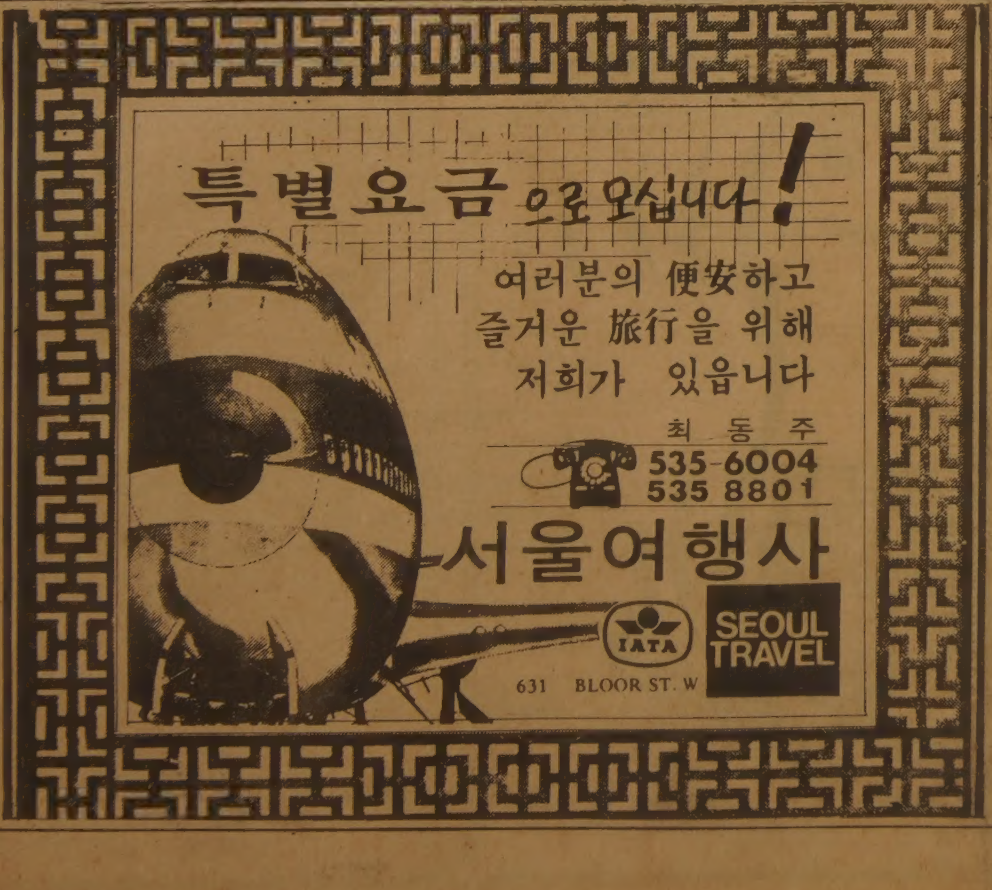
은하 보석
난콤화장품 대리점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귀국선물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537-3174
46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인사말씀

땀의 결실을 얻는 중추가 우리들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는 차제에 경애하는 교민여러분의 가정마다 신의 가호와 아울러 주 안에서 평강하옵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금번 소생은 뜻한바 있어 거북이선물센터(전 대표 이정석)를9월20일자로 인수받아 현 상태위에 새로운 물품을 더욱 구비하여 교민 여러분들께 친절과 신용본위에서 봉사코자 하오니, 성원하여 주시옵고 끊임없는 하교와 편달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82년 9월 20일

거북이선물센터 대표 황은심

개업파티
82년9월25일(토) 하오4~9시
많은 교민께서 참석하셔서 더욱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617 BLOOR ST. W. TOR. ☎ : 535-2143

East AsianLibrary
Rm 3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공무원 봉급·물가 5% 동결안

「온」주정부 의회상정, 반대데모일어

온타리오 주정부는 공무원의 임금 인상을 1년간 5%로 묶고 물가인상을 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반·인플레 법안을 입안,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주정부의 급료를 받는 50여만명의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들중에는 주정부및 시공무원은 물론, 공공기업체및 학교 고용원, 선거로 선출된 관리, 경찰관, 소방관, 의료시설고용원이 포함된다.

이 법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되면 10월1일이후에 시효가 만료되는 고용계약은 5% 임금 인상으로 1년간 연장되며, 이 기간중에 일체의 파업은 법으로 금지되게 된다. 10월1일 이후에 고용계약이 만료되는 근로자수는 50만명의 3분의2가 된다.

한편 고용계약이 없거나, 10월1일 이전에 끝나는 나머지 13만명(주로 교사와 병원근로자)의 경우는 1년간의 「잠정」기간을 두어 9%미만으로 인상되며, 그후 1년간은 10월1일이후에 계약이 만료되는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5%로 동결된다.

개인기업체에 근무하는 고용인은 이와같은 주정부의 임금인상 동결안에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이들도 임금동결에 자진 협조해 줄것을 주정부는 당부하고 있다.

주정부의 물가통제위원회는 지금부터 83년말 사이에 모든 주정부의 통제를 받는 물가가 인상될 경우 이를 검토해서 부당할 경우 행정권을 발동, 인상율을 내리거나 인상시기를 연장하게 된다.

프랭크·밀러재무장관은 21일 주의회 임시회기 개회에서 이 법안을 상정하면서 이는 공공부분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경제부담을 줄이고 고용감소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밀러재무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의 봉급인상률이 최근 평균 12%나 되어 오히려 민간부문의 인상율을 상회하지나 않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봉급인상 동결에 분노한 노조원들은 밀러재무가 이 법안을 상정하는 동안 퀸스파 온타리오주정부 건물밖에서 윌리엄·데이비스 주수상의 화형식을 가졌다.

약3천명의 주정부 공무원들은 불타는 데이비스수상의 허수아비에 둘러서서 "파업"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특히 이들은 의사만이 이 5% 동결에서 제외된 것에 크게 불만을 터트렸다.

한국여자탁구 서전승리

단체전서 캐나다팀 연파

캐나다 오픈탁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한 한국여자탁구팀이 캐나다팀을 연파, 서전을 장식했다.

22일 상오 이토비콕 올림픽체육관에서 열린 경기에서 한국여자팀 단체 A,B팀은 캐나다 여자 A,B 두팀을 각각 3:0으로 계속 눌렀다.

노위치(Norwich)보험회사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 청소년 남녀팀이 단체전에 출전하며, 여자개인전에는 김 숙양이 단독 출전한다.

시온고교의 남자선수 4명과 이일여고의 여자선수 4명및 임원6명등 15명이 이번 대회에 출전했다.

선수단 숙소는 하이웨이 427옆의 홀리데이인이다.

경기관람료는 $2, 결승전은 $5이며 노인및 12세 미만은 무료, 경기는 오는 25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 참가국은 캐나다, 미국, 일본, 인도, 체코, 영국, 자메이카, 파키스탄, 트리니다드등 10개국이다.

캐나다속의 참된 한국인의 목소리
—토론토 한국일보—

메트로에서 유일하게 모국어교육않는

스카보로교육위 6일 공청회

메트로·토론토에서 모국어 교육(Heritage Language Program)을 실시치않는 유일한 지역인 스카보로교육위원회는 오는 6일 저녁8시 공청회를 갖고 모국어 교육제 도입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스카보로복합문화·인종관계위원회가 인간봉사위원회(Human Services Board)의 인준을 받아 제기한 이번 공청회는 모국어교육도입에 대한 찬·반 양쪽의 발언을 듣고 표결로 이 문제를 결정한다.

공청회 장소는 스카보로시청(Scarborough Civic Center 140 Borough Dr. Scarborough로 엘즈미어(Ellesmere)와 브림리(Brimley)동북쪽이다.

모국어교육프로그램은 1977년 온타리오주 정부가 실시한 이후 주정부의 전액 재정보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교육위원회가 모국어교육을 거부하고 있는 스카보로시의 모국어교육학교들은 대부분 학생들로부터 수업료를 받는등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카보로의 한글교육학교로는 샛별한글학교(교장 문관식)가 있다.

주정부가 경비를 충당해가며 실시하고 있는 모국어교육을 스카보로가 에트닉의 수가 점차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택치않고 있는 이유는 스카보로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반대의견을 표시해왔기 때문이다.

스카보로교육위원회는 11개 구역(ward)에서 선출된 교육위원(trustee) 1명씩과 2명의 캐톨릭학교 대표등 모두 14명의 위원을 두고 있다.

만일 8일의 공청회에서 모국어교육채택을 원하는 많은 에트닉계 학부형등 교육관계자들이 지지발언, 공청회 참석등으로 모국어교육에 대한 열의를 보일 경우 교육위원들은 지역선거구에서 선출된 입장임을 감안, 모국어교육 도입을 지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스카보로의 에트닉 학부형이며 모국어교육에 관한 검토를 실시중인 스카보로복합문화·인종관계위원회 산하 교육위 위원장인 알렉·이코노머즈씨는 지난 17일 김창영 한인YMCA 총무와 함께 본사를 방문, 한국인 학부형들이 공청회에 참석, 모국어 교육에의 관심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관심 표명방법은 지지발언, 지지발언자에 박수로 격려와 참석못할 경우는 자기 구역 교육위원들에 전화등으로 이 문제를 재고토록 압력을 가하는 방법등이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제3구역(ward 3)의 테를리·조지·H위원이외의 모든 교육위원들이 반대의사를 갖고 있다.

가장 활발한 모국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토론토시 교육위에서도 이날 공청회에서 모국어교육이 도입되도록 지원세력을 보낼 것이라고 밝힌 김총무는 "정치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 때 한국사람들도 목소리를 합쳐주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스카보로에는 한글학교가 한개뿐이지만 시교위가 정식으로 실시하게 되면 몇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그만큼 한국인 자녀들께 혜택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영어학교 새학기

21일시작, 주2회 수업

무료로 수강 할수있는 노인 영어학교가 여름방학을 끝내고 21일 가을학기를 시작했다.

토론토한국노년회(회장 조영호)가 올해 1월 개교한 영어학교(교장 황대연)는 돈밀즈·온타리오과학관 동쪽 Grenoble국민학교에서 초·중·상급 3개반으로 나뉘어 수업을 하며 수업시간은 매주 화·목요일 하오6시—8시이다.

수강희망자는 노년회(755—8079)로 연락하면 된다.

◆노년영어학교 중급반 일동

대학팀과 친선게임차

캐나다농구팀방한

(서울 22일=연합)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대학 농구팀이 한국팀과 일련의 친선게임을 하기위해 오는 27일 서울에 도착한다.

15명으로 구성된 브리티시·콜롬비아팀은 28일 건국대학팀, 29일 청소년팀, 30일 고려대학팀, 10월2일 한양대학팀과 각각 게임을 가질 예정이다.

▲ 마르코스 방미 반대시위 3천여명의 노동자, 농민, 학생들은 14일 마닐라 중심가에 소재한 한 천주교성당 광장에서 마르코스 대통령의 미국방문을 비난하는 반정부시위를 벌였다. 정면에 보이는 사진은 거꾸로 들려진 이멜다여사의 초상화.

金聖鍾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73>

어떤殺人 ⑳

그녀는 불안에 떨며 코피잔에다 약을…

두봉은 누이를 바라보았다。그리고 나무라는 투로

『넌 그러고 있지말고 차나좀 가져와。손님대접이 어디그럴수가있니。』

하고 말했다。

그녀의 표정이 일순 변하는것 같았다。두봉은 사납게 누이를 흘겼다。

『차좀 가져오래두。』

『코피요?』

『그래。』

문자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코피포트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는데 손이 덜덜 떨렸다。오빠는 약을 타라고했다。코피를 가져오라는 말을 그렇게 알아들으라고 했다。그런데 어떤 약을 타라고 말하지는 않았다。그녀는 숨겨둔 약병두개를 꺼냈다。물이 끓기시작했다。찻잔을 세개 꺼냈다。

코피와 설탕과 프림을 적당히 나누어 넣은 다음 뜨거운 물을 부었다。스푼으로 여러번 휘젓고나서 약병을 집어들었다。하얀 분말이 들어있는 약병이었다。갑자기 그녀는 혼란을느꼈다。어떤것이마취제이고어떤것이독약인지분간할수가없었다。두뇌기능이갑자기 정지되어버린 기분이었다。공포와 불안이 겹치다보니 그렇게된 것 같았다。들고있던것을 내려놓고 이번에는두색의 액체가 들어있는 병을집어들었다。이게 마취제 일거야。아니야。이건 청산이야。아니、그렇지 않아。이건 마취제야。그녀는 갈팡질팡했다。몇번 그러다가 결국 물약이 마취제라고 단정했다。차마 독약을 탈수는 없었다。마취를 시켜놓은 다음 처리문제를 생각해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했다。마개를 뽑았다。독약이 아닐까。실수하는게 아닌가 해서 손이 걷잡을 수없이 떨려왔다。몇번 시도하다가 마침내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데 성공했다。

쟁반으로 코피잔 세개를 받쳐들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부엌을나왔다。약을 탄 코피잔을 정확히 기억해두었다。찻잔은 모두 똑 같은것들이었다。맨오른쪽 잔이 약을탄것이었다。그릇들이 달그락거렸다。

朴 男 그림

맨먼저 약을탄 찻잔을 모세(毛世)앞에 내려놓았다。다음에 오빠 앞에 그리고 자신이 앉을자리에 잔을내려놓았다。두봉은 계속 애걸하고 있었다。

『1억을 그것도 일주일안에 일시불로 내놓는다는건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돈을 받아내시더라도 이쪽이 한숨돌리게하면서 받아내셔야지 그렇게숨쉴틈도 없이 받아내시면 이쪽사람은 그만 질식해서 죽고 맙니다。내누이가 죽어서 선생한테 이득이되는게 뭐가있읍니까。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정을 좀 봐주십시요。』

『안돼、안된대두。』

두봉이 아무리 애걸해도 모세는 그런도 하지 않았다。그는 마치 채권자같이 당당하게 굴었고、반대로 두봉은 채무자처럼 한 없이 비굴하게굴었다。

『차식기전에 드십시요。』

문자는 오빠가 찻잔을 모세 앞으로 밀어놓는 것을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다。그런데 모세는 얼른 잔을 들지않았다。두봉이 먼저 잔을 들어 코피를 마셨다。모세도 마침내 잔을들었다。

모세의 시선이 문자에게 향했다。그의 강렬한 시선을 느끼고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순간적으로 그가 다시지않았으면하고 바랐다。그가 마취되어도문제였다。그러나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때 모세는 이미 찻잔을 입에 대고 있었다。

한인성당14돌기념

특별묵상회

토론토한인천주교회(주임신부 고종옥)는 오는 26일(일) 창설 14돌을 맞아 21일(화)부터 24일(금)까지 4일간 매일 하오7시반 대건회관(439 Dundas St. E. Tor.)에서 미사와 특별강론을 곁들인 연속 묵상회를 열고 있다.

강사는 로마에서 영성(신비)신학을 전공하고 있는 박재만 신부(대전교구소속).

9월26일은 한국순교자축일로 가톨릭교회에서는 세계 모든 성당이 해마다 이날을 한국순교자 기념일로 축하미사를 드린다.

14년전 이날 설립된 토론토한인성당은 한국순교자중 첫 사제인 안드레아·김대건 신부를 수호자로 정하여 "대건본당"(Blessed Kim Daekun Church)로 불리운다.

결 혼 축 하

신랑: 조정례여사 4남 김영규군

신부: 강동성씨 장녀 강미라양

때 : 9월25일(토) 정오

곳 : 쎄인·폴 성당 (83 Power St.Tor)

◀ 정 정 ▶

지난 21일자 본지 제2면 "영님향우골프대회" 기사와 제목중 "차선향씨"는 "차선행씨"의 잘못이었기에 바로 잡습니다.

차선행씨는 이 대회에서 74점으로 1등을 차지했었읍니다.

같은 2면 "제5계절" 예고기사중 조청대씨 약력에 "청주고교 교사"를 "청구고교 교사"로 바로 잡습니다.

〈유인형수필선〉

꽃송이 ③

1세들의 설화를 아시나요? 뼈가 부러지라 하고 일만 했던 시절이었지요. 밤과 낮의 구분이 없었던 삶이었다나 봐요. 때와 장소를 가릴 것 없이 일하고 또 일만 했으니까요.

오죽하면 문화충격이라고 그랬겠어요. 형용할 수 없는 충격으로 어느 가족은 풍지박산이 되었대요. 이혼이란 것보다 더 큰 "풍지박산"이 또 있겠어요?

참 허허로운 평원이었지요. 아득하게 외롭고 또 고달픈 평원이지만 그래도 꽃씨를 뿌렸대요. 깜깜한 어둠이나 눈보라속에서도 항상 해바라기같은 활력과 정열을 간직했대요. 소외를 피하는 방법으로 일하는 것에다 재미를 붙인 것이지요.

한쪽에선 밝은 빛으로 향하는 방법을 구원자에게서 찾았대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개척인들에겐 영혼의 위로가 갈급했으니까요.

그렇지만 말썽꾸러기가 자꾸만 늘어났지요. 하느님 사업에 재미를 붙인 장돌뱅이들 이예요. 여기도 몇명, 저기도 몇명씩 보따리교회가 생겨났어요. 사실 이곳에 오신 1세들은 이 세상에서 꼭 해야할 사명이 있어서 이 시대에 태어났다고 믿는 선각자들이었지요. 불의를 보고도 말 한마디 못하는 비겁자가 아니라, 행동으로 개척해 나가는 산 거울이었지요.

그중에 입만 가지고 교리가 어떻고, 천국이 저쩌구 하던 사람들도 있었대요. 노동하기도 싫고 「님」자 소리는 듣고 싶고····, 「장돌뱅이님」들 때문에 씁쓸한 분위기가 되었답니다.

시커먼 박쥐옷이나 걸치고 유치한 수법으로 떠들더니 이제는 조용해졌어요. 불과 몇십명도 안되는 교회에 아버지와 아들이 박쥐옷을 번갈아 입어가며 설교 하기보다는 세습제도 만들기에 바빴으니 얼마나 우스워요. 하지만 요란스러운 「장돌뱅이님」들의 헛소리도 사라졌군요. 이미 없어져 버린 것이지요. 장사가 안되면 「장돌뱅이님」들은 떠나갑니다. 다만 한 가지 이해가 가는 것은 그러한 욕구불만의 해소장이 없었다면 무슨 재미로 사셨겠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도 숨어서 타오르는 모닥불들이 있었어요. 그건 꽃씨지요. 몸부림을 치면서 축적한 돈으로 우리들의 문화를 옮겨 심는 작업 말이예요.

진달래도 피어나고, 매화꽃의 향기도 풍겨 오지요. 우리들의 언어로 우리들의 대화를 가꾸어 나갑니다. 강강수월래 춤도추고, 태권도의 무사도도 가르칩니다.

이곳은 첩첩산중의 박토가 아니랍니다. 무엇이건 뿌리면 싹이 움트고, 열매가 맺지요.

어쩌자고 넋빠진 사람마냥 우리끼리 물고 뜯는 「장돌뱅이님」들이 판을 쳤을까요. 억압과 불신이 싫어서 이곳으로 왔는데, 저따위 귀족취미에 빠질수야 없겠지요. 저들은 헌금을 모으면 좋은 일을 하겠다고 떠들었지요. 저마다 분에 넘친 자기 소유의 건물을 사들이는게 좋은 일인줄 알았나 보지요. 언제나 돈을 벌어서 좋은 일을 하겠다는 건 돈벌이로 끝나고 말지요.

헌금하나 바르게 못쓰는 주제에 죽은 다음에나 찾아갈 하늘나라 얘기만 했다나 봐요.

2세인 우리앞엔 무엇이 남았나요. 껍질은 떠났고 알맹이만 남았읍니다. 역경을 이겨내고, 피어나는 꽃봉오리들입니다. 한국인의 슬기와 긍지겠지요. 더러운 추태란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멸됩니다.

벌써 1세들의 설화 다음에 2세들의 전통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잠깐 사이지요. 견디기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서로에게 주어진 일을 찾아내고, 삶의 의미를 쏟아붓는 작업입니다. 간절한 욕구지요. 무엇이나 썩지 않고선 어찌 꽃씨가 삭터 오르겠어요.

현실과 미래를 똑같이 바라보면서 1세들의 설화를 곰곰히 생각해 보세요. 전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하고, 후레자식이 되어 소란만 피우다간 3세들에게 할말이 없게요. 연륜이 쌓이면 싫건 좋건 3세의 조상이 되니까요.

전통이란 수없이 걸러지는 앙금이예요. 그러니까 알맹이죠. 여긴 전세집이나 세들어 사는 그런 곳이 아니라 바로 내 집이며, 내 땅입니다. 「장돌뱅이님」들처럼 무관심과 질시 속에 겉으로는 웃고 속으로는 증오에 불탄다면 영원히 손님만 되지 주인은 될 수 없겠지요.

한번만 살다가 떠나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나요. 우린 1세들의 설화를 이스라엘, 일본, 중국, 우크라이나, 독일계등등과 비교해 봅니다. 창피스런 치부도 그대로 조명해 봅니다. 그래야 무엇이 한심스러운 과거였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넓고 좁은 영토에서 무엇이 떳떳한 주인이 되는데 지장을 주었는지 분석해 봅니다.

이제는 북새통도 지나갔고, 능력을 키워가며 심장부로 파고 들어갑니다. 변화가 온 것이지요. 꾸물거릴 것 없이 실력을 쌓아 갑니다.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보람인 꽃봉오리가 여기저기서 피어납니다. 매섭고도 끈질긴 꽃입니다. 열망하지 않으며, 시들지 않는 1세들의 설화입니다. 정말 눈물나도록 뜨거웠던 1세들의 꽃봉오리를 아시나요?

김삿갓마냥 낭만에 젖어 찾아온 사람들이지요. 비록 갈나무와 고염나무 대신에 라일락을 심어도 화사한 복사꽃잎일랑은 잊지 못했던 분들이지요. 1세들의 꽃봉오리가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그것이 「전통」이니까요.

오뚜기 정기예금!!

⊙ 특 징

1. 은행 우대금리 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자가 오름
2.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당시 이율보다 내려가지 않음
3. 이자는 매월말 정기적으로 받음
4. 언제든지 중도해약 가능

● 문의 : ☎ 533—9387
533—9388

641 A BLOOR ST. WEST.

⊙권장대상

1. 교회및 각 단체등의 장기성예금
2. 목돈으로 월정생계비, 용돈을 원하시는 노년층.
3. 목돈예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모국방문 및 성지 순례등 일정한 목적에 적립하고자 하시는 분.
4. 금후 오를 이율의 이익을 받고자 하시는 분.

보험과 법이 보장하는

토론토 한인신용조합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실협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제공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627A Bloor St. W.
Toronto, Ontario
M6G 1K8
Phone: 533–7923
533–8344

정기총회10월22일

안건 : 「협동조합」정관채택

지난 수년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여 온 본 실업인협회의 82년도 정기총회가 10월22일(금) 하오6시로 결정되었다.

장소는 Leslie와 Eglinton Ave.E.소재 Inn on the Park호텔의 Seton Room으로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이사선임위원의 선출및 협회 역원의 사업중 하나인 「협동조합」의 설립에 대한 정관심의및 채택과정이 있으므로 보다 많은 회원의 참여를 기대한다.

—외설잡지 고발사건—

법정투쟁 비용부담 약속 메트로뉴스

기보한 바와 같이 외설잡지 판매로 인한 당국의 단속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16일 하오 협회에서는 김태진 이사장과 차선겸 회장이 상담실장을 대동, Metro Toronto News사의 Petraitis부사장을 방문하고 의견을 교환하였고, 20일에는 Inter City News사의 Nerlich부사장과 협회사무실에서 회동하였다.

사건발생이 「실협뉴스」를 통해 보도된 직후 상담실로 들어온 20여 회원의 문의전화 내용은 아래 3가지로 종합할 수 있다.

1)어떠한 잡지가 단속대상이 되는가?

2)사전대책은 무엇인가?

3)이것은 공급회사의 책임이 아닌가?

대체로 경찰이 이러한 단속에 나서는 것은 손님의 고발에 의한 것이 가장 많으므로 이것을 방지하도록 "진열"에 신경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양측 회사의 공통된 의견이고, 잡지의 종류에 따른 단속대상 구분은 현단계로서는 공식적인 기준이 없어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비록 연방정부법에 의해 정식으로 통관이 되었어도 온타리오주법에 다시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이 법적해석이다.

사전대책으로 1)아이들 손이 닿을 수 없는 5feet이상 높이에 진열할 것, 2)표지의 그림이 노출되지 않도록 blinder로 가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건발생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Metro News는 일체의 법정비용(legal cost)과 벌금(fine)을 책임지고 고발된 잡지중 Metro News 해당부분을 책임지겠다고 확약했다.

Intercity에서는 회사변호사가 담당처리하겠다고 확약하였고, North American News의 Marilyn Reid는 전화문의에 대해 현단계로서는 이러한 사건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기준을 알 수 없다며, 과거에 해왔듯이 사건발생 즉시 회사로 연락해주면 자체변호사를 통하여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9월27일로 예정되어 있는 경찰서의 morality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있기를 기대하거니와 현재로서는 손님의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진열(display)에 유의할 것과, 고발조처를 당하면, 1)잡지의 표제(title)와 수량, 2)담당경찰관의 신원을 확인하여 즉시 해당회사에 연락해줄 것이 요망된다.

아울러 양회사는 이에 관한 서신을 직접 각 회원에게 배부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단속의 강화는 외설잡지의 통제를 입법화하려는 시의회의 움직임과, 선거를 앞둔 정치적 영향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급회사측의 소식에 의하면 현재 추진중에 있는 입법화의 내용에는 연 $25–$35의 fee를 내고, licence를 얻어야 하고, 진열에 관한 세부규정이 표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한편 협회는 토론토시내의 각 지구 mayor들에게 서신발송, 또는 면담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까지 고발조처된 회원상점은 Avenue Rd.의 C회원, Richmond Hill의 K회원, Eglinton Ave.의 H회원, Downtown의 L회원등 4개회원 상점이다.

Blinder는 원하는 회원은 Metro News에 전화(752–8720, ext.248)하여 필요한 크기(3 feet와 4 feet의 2종)를 알려주면 배달해 준다.

◆문제된 잡지류

「협동조합」

지상토론란 설치

협동조합의 탄생이 무르익어가고 있는 차제에 그 사업의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협뉴스」를 통하여 회원·비회원에 관계없이 각계의 고견을 종합해 보고자 "지상토론란"을 설치하였으므로 많은 기고를 바라고 있다.

내용은 1)조합설립 찬성과 그 필요성, 또는 반대와 그 이유, 2)출자에 관한 문제, 3)운영관리에 관한 문제, 4)한인사회에 미치는 영향, 5)기타 개인적인 조언등으로서 지면관계상 200자 원고지 2매정도로 이상 내용중 어느 것이나 선택해서 쓰고, 번거로우면 전화로 불러주어도 무방하다. (전화 533–7923)

K.B.A. 교환센터

회원 상호간에 무엇이든지 처분을 희망하거나, 또는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연락하여, 서로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센터(Centre)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많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실협뉴스」의 일각에 K.B.A. Trade–In Centre를 설치하기로 하였읍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법률상담>

유 서 <7>

Ralph M. Levine
강공선 역

유서는 왜 필요한가?

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 수 있다.

1)유서작성은 변호사가 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2)굳이 돈을 들여서 유서를 작성할 만한 재산이 못된다.

3)어차피 "모든 것은 배우자에게로 돌아갈 터인데"라고 오해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모두 곡해에서 연유한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1)유서는 꼭 변호사가 작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작성해서 서명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잘못해서 효력이 없는 유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유서는 올바른 서명과 입회인을 요하므로 변호사를 만나서 합법적인 유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유서를 작성하는 변호사 비용은 그리 비싸지 않으며, 이 시초의 몇푼이 결국 가서는 큰돈을 절약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2)유산의 규모에 대해 대부분이 그 진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즉 인플레로 인한 재산의 가치상승(예를 들면, 보험증서, 연금수당등)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가장 보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유서를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 모든 것이 배우자에게로 간다고 믿고 있는 점이다. 유산이 $75,000이면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한 사람이 유서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개정상속법의 제2부에 의해 분배되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법정상속인"(Heirs–at–Law)에게로 넘어가고, 반면에 혜택을 받으리라고 기대했던 근친자는 현행법상의 분배원칙에 따라 아무 것도 못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상이 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보편적인 이유이며, 유서 없이 사망함으로써 초래되는 불편과 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유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유언집행자(Executor)의 임명이라고 했다. 유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망하는 것을 "Intestate"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유산을 관리할 유언집행자가 없으므로 누군가가 유산을 관리하는 유언집행자의 기능을 다할 "유산관리인"(Administrator)의 임명을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유산의 관리가 복잡해지고, 지연되며, 상당한 비용이 들므로 결과적으로 유산이 줄어들게 되기 쉽다. 당초에 변호사를 통하여 유서를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소요되는 재판비용과 법정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유서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자신의 편의와 능률을 위해 누구나 유서를 작성하기를 권하고 싶지만, 특히 개정상속법 제2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꼭 유서 작성을 해야 한다.

유서 없는 사망시의 분배안에 대해서는 차후 상술하겠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서를 꼭 작성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1)별거중인 배우자 – 결혼중에 있는 부부는 $75,000까지 권리가 있지만 별거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 유서가 있으면 누가 정확히 얼마의 재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일정인이 법원에게 명할 수 있지만 유서가 없으면 법원이 사망자 대신 유서를 작성하여 유산관리인을 지명하고, 상속법이 규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생존하고 있는 근친자에게 재산을 분배하게 된다.

재산분배는 대개의 경우 사망자의 뜻대로 처리가 되지만 유서 없는 상속에 관한 법률은 융통성이 없어서 분배의 원칙은 공평을 기하게 되어 있으나 뜻밖의 결과를 초래하는 예가 종종 있다. 그리고 사망자의 진의에 맞지 않게 분배가 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즉 상속법에 규정된 룰을 벗어날 수 있는 재량이 없는 것이다.

재산분배를 좌우할 수 있는 당사자는 바로 사망자 자신이기 때문에 결혼한 상태에 있으나 별거중이면 꼭 유서를 작성해 두어야 한다. 그러나 배우자를 완전히 상속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동거중인 배우자(Common Law Spouse) – 정식 혼인을 하지 않고, 동거중인 사람은 법의 결정에 내맡기는 수밖에 없다. 사망자의 배우자에게는 유리한 혜택이 있게 마련이지만 법률상으로는 양자가 법적으로 혼인이 되어 있어야 함이 요건으로 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거중에 있는 관계를 부부의 상태로 인정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근로보상법(Workmen's Compensation Act)같은 것은 동거자를 부부로 간주하고, 남편의 사망시 동거중인 부인이 상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유서없는 상속에 관한 법률은 그러한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법률상의 배우자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동거중인 배우자가 사망후의 혜택을 원할 때에는 유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산은 사망자의 근친자(next of kin)에게 분배된다.

3)근친자가 없는 사람 – 배우자, 자식, 근친자가 전혀 없는 사람이 유서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가까운 친구나 자선단체도 유산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재산을 정부에 바치고 싶지 않으면 유서를 만들어야 한다.

새로 개업한
서울식품 서부지점
☎: 243–9544
★배추김치·총각김치·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백이
※좋은 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1391 WESTON RD

훼밀리·닥터
(의사 왕윤린)
(B) 968–1543·(R) 363–9196
600 SHERBOURNE ST. #402
월~금: 오전10시~오후7시
토: 오전11시~오후3시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 532–0210 손병헌

삼우스튜디오
성인미술교실안내
–FREE WORK SHOP–
개강일시 : 10월6일(수요일)
수시접수

수	인체뎃상 (착의혹은누드)	오후7시~9시	이젤 화판제공
목	인체뎃상 (착의혹은누드)	오후7시~9시	이젤 화판제공
토	조소·조각 (MODELING OR CARVING	오전10시~ 오후2시	조각대 제공

●초심자를 위한 개인지도
●기성작가 참여 환영
문의처 : 537–7630(스튜디오)
536–1908(집) MR. 장
SAM WOO STUDIO
58 WADE AVE.
(Lands down 써브웨이 북서쪽)

Cooper Furs
밍크특별여름세일
밍크(모든 쉐이드), 비버–여우–라쿤–코요트–페르시안 양등을 이윤 없이 판매함.
비 정상적 가격 40% 할인
40년 전통, 수리, 재 재단, 세탁포함.
일요일은 예약자에 한해 영업함.

1978 Weston Rd. 정성주
(Lawrence 1블록 북쪽)
☎: 241–8091, (R)276–4373

지휘자 구함
본 교회에 성가 및 찬양을 맡아주실 지휘자를 구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9월30일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 격 : 1. 세례교인
2. 30세 이상된 자
3. 지휘경험 3년이상
4. 전공자이면 더욱좋음
응모자격 : 이력서 우송요망
502 Bathurst St.
Toronto Ont.
연 락 처 : ☎ 249–5461 961–8361 (정목사)
토론토중앙교회

패숀의 밤
아래와 같이 제2회 진명펀물 패숀의 밤을 가지고자 하오니 교민 여러분들 오셔서 즐거운 한 때가 되시기 바랍니다.
때 : 1982년10월2일(토) 오후 7시
곳 : 한인연합교회 친교실
300 BLOOR ST. W.
입장권 : $3.–(어린이입장은 사절함)
※좌석관계로 표를 미리 예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리셉션은 다과)
연락처 : 윤봉린 ☎ 275–0339
서운복 ☎ 261–2197
이동숙 ☎ 663–8369
주최 : 진명여고동창회

中共, 北傀에 A5機 제공

미그21改良型 20여臺 奇襲 선제攻擊에 위력

【東京=宋孝彬특파원】중공은 금년초 북한에 자국산A5전투기(소련제 미그21機 개량형)20대이상을 제공했다고 산께이신문이 18일 일본정부소식통을 인용보도했다. 산께이신문은 이번에 제공된 A5전투기가 모두 신제품이며 조립공장에서 곧바로 북한공군기지로 보내졌다고 보도했다.

中共 年40臺생산… 美선 40臺제공 주장

이신문은 중공이 북한에 제공한 댓수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바는 없으나 지난번호놀룰루에서 열린 제14차美日안보실무협의때 일본측이 20여기라는 정보를 제시한데 대해 미국측은 40대설을 주장했다고 이신문은 전했다。 중공이 자국산 최정예기인 A5전투기를 북한에 제공한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중공은 그동안 석유등 군수전략물자외에 저공기습용 프로펠러단발기인 안도노프2(AN2)및 T62輕戰車등을 북한에 제공해왔으며 75년에는 중공제 미그19機50대를 제공한 바있다。

이번의 전투기제공에 대해 일본의 군사전문가들은 A5機(즉 미그21機)가 세계적으로는 구식이지만 아직도 기습공격에는 큰 위력을 발휘하며 ▲軍근대화를 서두르는 중공군에도 A5機는 중요한 최신병기인데다 ▲중공의 A5機 생산능력이 연간40대정도인데도 절반이상또는 모두를 북한에 제공한 것은 이상하다고 분석, 이같은 군사원조가 質量면에서 계속될경우 한국은 물론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군사정세에 미묘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고 산께이는 보도했다。

이신문은 또 ▲지난4월鄧小平등 중공수뇌의 平壤방문 ▲이번 金日成 訪中의 열렬한 환대 ▲對蘇관계개선시사 ▲일본군국주의부활반대등 최근 중공의 對外정책수정움직임과 관련, 중공의 對북한군사원조강화가 중공의 새로운 세계전략의 일환으로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軍、蘇대사관서 撤收

탱크 앞세운채 占據 3일만에

이軍 즉각撤收요구 安保理 결의안채택

【유엔本部AP=聯】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17일밤 이스라엘의 서베이루트점령을 규탄하고 이스라엘군의 즉각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미국도 지지한가운데 15대0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미국이 유엔안보리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한 결의안에 찬표를 던진것은 지난해 6월 이라크원자로 폭격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베이루트AP UPI=聯】西베이루트를 장악한 이스라엘軍은 지난 15일밤 탱크를 앞세우고 베이루트주재 蘇聯대사관에 진입, 17일상오까지 대사관 점령을 계속하고있다가 철수했다고 蘇聯외교관들이 밝혔다。

베이루트주재 蘇聯대사관의 한 외교관은 기자들에게 이스라엘탱크에 의해 부셔졌다는 대사관의 문과 벽바다에 선명히 나있는 탱크바퀴의 자국을 가리키면서『대사관에 진입한 이스라엘軍은 우리 외교관들이 8차례에 걸쳐 나가주도록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兵士들이 15일밤 蘇聯대사관에 진입해서는 대사관구내에 테러분자들이 있느냐고 물어『우리는 그들에게 이곳은 대사관이며 우리들의 신분은 외교관이기 때문에 테러분자들이 있을리 없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그는 17일상오 기자들이 대사관에 몰려들어 계속 질문을 던지자 이스라엘軍이 「기자들이 두려워」대사관에서 철수했다고 덧붙였다。

쿠바大使館도 포위

【아바나 聯=AP】쿠바는 17일 1백명이상의 이스라엘군 장병과 수대의 무장차량들이 베이루트주재 쿠바대사관을 포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山地활용 農家소득 높여야"

全대통령、安城서 벼베기돕기

◇全斗煥대통령이 京畿道安城郡大德面內里에서 이지역출신 柳致松民韓黨총재와 벼베기를하며 담소를나누고있다。

全斗煥대통령은 18일『식량증산과 농촌소득을 증대시키기위해 景觀을 해치지않는범위안에서 山地를 활용토록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이를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朴鍾汶농수산부장관에게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이날낮 京畿道安城郡大德面內里에서 청와대비서실、경호실직원들과함께 벼베기일손돕기를 끝낸뒤 이지역출신 柳致松民韓黨총재、李鎔熙의원(民正)、鄭作主등과 오찬을함께하며 이같이 지시하고『앞으로는 식량도 武器化될가능성이 매우크기때문에 식량을증산해 자급자족하는길을 모색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

全대통령은 또『식량의증산도 중요하지만 농촌소득 증대를위해서는 특용작물재배나 牧畜등 附加가치가 많은부업을 장려해 연간농가소득이 戶當 최소한 5백만원정도가되도록해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벼베기에 앞서 康晋鈺京畿道지사로부터 道內벼作況과 벼베기현황을 보고받고 모내기당시의 가뭄에도 불구하고 풍작을 이룬데대해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李殷相씨 別世

원로시인 鷺山 李殷相씨가 10개월여의 투병생활끝에 18일상오0시19분 서울 龍山區 漢南洞1의300 자택에서 별세했다。향년79세。

가곡 「가고파」「봄처녀」「성불사」의 가사 작가인 鷺山은 1903년 慶南馬山에서 출생, 延禧전문과 日本東京 와세다대학에서 수업했고 梨花女專교수를 역임하며 문필활동을했다。 광복후에는 湖南日報사장을 지냈고、예술원 원로회원、국정자문위원으로 있었다。

全대통령 弔意표명

全斗煥대통령은 18일 상오 金泰鎬정무제2수석비서관을 故李殷相씨의 빈소에 보내 조의를 표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한편 정부는 별세한 李殷相씨에게 문화훈장 1등장을 추서키로 했다。

独立紀念館건립誠金

우리의 작은 精誠… 큰뜻 이루게

<13일접수>
접수電話 722-4171

韓國타이어製造(株) 趙洋來사장 임직원일동 2千4萬원

대한건축사협회 具玧會회장外 회원·직원일동 1千1萬원

▲韓國타이어製造(株) 사장 趙洋來씨외임직원一同=2천4만원
▲대한건축사협회 회장具玧會씨외회원및직원일동=1천1만5천원
▲사단법인韓國學院總聯合會人文系學院학생및교직원一同=5백2만4천96원
▲서울學院=1백3만7천56원
▲龍門學院=24만7천원
▲京一學院=1백39만2천1백30원
▲登龍文學院=72만원
▲養英學院=84만7천5백원
▲西江學院=35만7천원
▲世宗學院=42만3천4백10원

學院總聯合會(人文系學院 학생·교직원) 5백2만원
德園中·女高 崔陽植교장外 3백28만원
英坡女高 김성구교장外 2백48만원
英坡女中 김성구교장外 1백5만원
서울도봉국교 이계석교장外 1백69만원
답십리국교 고연욱교장外 1백61만원

▲德園中·女子고등학교(교장崔陽植)교직원및학생일동=3백28만9천1백95원
▲英坡女子고등학교(교장김성구)교직원및학생일동=2백48만2천1백40원
▲英坡女子中學校(교장김성구)교직원및학생일동=1백5만2천3백원
▲서울도봉국교(교장이계선)전교생(대표 6년 한인섭·정치환·채화정·인솔교사 노용진)및 교직원일동=1백69만5천5백57원【소년한국일보접수】
▲서울답십리국교(교장 고연욱)전교생(대표 6년 유화승·최효숙·5년 홍영기 인솔교사 정윤선)및교직원일동=1백61만6천5백90원【〃】
▲서울한남국교(교장 김익환) 전교생(대표 6년 박회범·이용신·김준엽·홍종희)및 교직원일동=1백43만2천3백50원【〃】
▲富平中學校(교장 趙泰東)교직원및 학생일동=1백37만7천1백87원【仁川支社접수】
▲서울용암국교(교장 박병춘) 전교생(대표 6년 차진규·류명숙·인솔교사 심정우·명춘식)및교직원일동=1백15만5천4백원【소년한국일보접수】
▲(株)코리아써키트 대표이사 宋東孝씨외 임직원一同=1백9만6천1백30원
▲사단법인 禮智院 원장 姜映淑씨외 회원및직원一同=1백만원

◇趙洋來씨

◇具玧會씨

◇姜映淑씨

◇趙泰東씨

서울한남국교 김익환교장外 1백43만원
富平中學校 趙泰東교장外 1백37만원
서울용암국교 박병춘교장外 1백15만원
코리아써키트 宋東孝대표外 1백9만원
禮智院 姜映淑원장外 1백만원
在美뉴욕실크팜(株) 1천弗

▲在美뉴욕실크팜주식회사 정영호사장외 사원일동=美貨1천달러【뉴욕지사접수】
▲在美금성사뉴욕支社=美貨1백달러【〃】
▲在美 하와이동포 리규삼씨(HENRY LEE)=美貨1백달러
▲啓洋纖維(株) 대표이사 金鳳煥씨외 근로자一同=73만2천원
▲서울 미아국교(교장 한휘수)교직원및 학생일동(추가분)=59만9천8백80원
▲韓國料理 明月 代表 徐粉禮씨=55만원
▲鳳鳴金屬工業(株) 禹龍鎭전무外=50만원

◇德園中·女高대표

◇英坡女中高대표

◇도봉국교대표

啓洋纖維(株) 73만원
서울미아국교 59만원
明月대표 徐粉禮씨 55만원
鳳鳴金屬工業(株) 50만원
용산로타리클럽 50만원
서울무학국교 46만원
서울고등학교 38만원
韓國東亞(株) 35만원

▲서울 용산로터리클럽 회원一同=50만원
▲서울무학국교(교장李國鉉)임직원一同(2차분)=46만원
▲서울고등학교교직원및 학생 一同 (추가분)=38만7천원
▲韓國東亞(株)임직원一同=35만원【仁川支社접수】
▲서울옥정국교(교장 임기현)교직원一同=34만9천원
▲서울장충국교(교장 김경한) 교직원 一同(추가분)=33만3천원
▲서울유현국교(교장 채순호)교직원一同(2차분)=26만6천4백25원
▲한국교역처평택지점직원一同=25만9천원【평택지국접수】

서울옥정국교 34만원
서울장충국교 33만원
서울유현국교 26만원
교역처평택지점 25만원
서울신림국교 25만원
공장새마을백97기 23만원
서울시체육회 21만원
서울중대국교 21만원
라이프사우디현장 千리얄

▲서울신림국교(교장 임정택)교직원일동(2차분)=25만8천원【소년한국일보접수】
▲한국수출산업공단내 공장새마을 서울연수원 제197期지도자반(대표 정두헌)일동=23만7천원
▲서울시 체육회 盧祐德부회장외 직원一同=21만5천원【日刊스포츠접수】
▲서울중대국교 교직원一同(2차분)=21만1천원
▲(株)라이프 사우디 쥬베일C30현장 이재동소장외직원일동=사우디貨1천리얄

광고문의 533·2361

社會漫評

"이상한 눈으로 볼필요 없다니까요…"

地平線

「어느 겨레나 마음의 고향이 있다。그겨레 전체가 그리워하는 마음의 向方이 있다는 말이다。그 겨레의 예술문화는 그 마음의 고향에 뿌리박는 법이다…。그러면 우리의 고향은 어디에 있는가。그것은 남쪽이다。초록제비 싣고 불어오는 마파람、그南風이 불어오는 남쪽 말이다」(趙芝薰의「詩와 人生」에서) 자잔한 고향바다 지금도 그 물새가 날으는 남쪽 바다로 가고파라며 노래한 시인이 이세상을 떠났다。▼조간신문에서 鷺山李殷相옹이 타계했다는 보도를 보며、현재 한국일보에 연재중인 중견작가 金容誠씨의 르포「文學史探訪」기사를 새삼 찾아 보았다。한사람 한사람을 대할때 마다 그리움이 솟아 오르고 이겨레「마음의 고향」이 여기로구나 하는 생각에 잠겨들었다。그들의 年譜를 들어보면 거듭 1900年代初、민족의 아픔을 새기게된다。1905년에 치욕적인 을사조약이 체결되었다。이때를 전후하여 민족의 얼을 그리고 노래할 많은 문인이 탄생했다。우리 현대문학의 개화를 예고하는 임태기였다。▼시인李相和、金永朗、朴龍喆、李陸史 소설가 羅稻香、朴鍾和、沈熏、李孝石、金裕貞등 일일이 손꼽기가 바쁘다。1903년생인 鷺山도 이들과 같은 세대다。그가 한국문학에 남긴 공헌은 시들어진 시조문학을 다시 일으키고 정착시킨 일이다。「오륙도 다섯섬이/다시 보면 여섯섬이/흐리면 한두섬이/맑으신날 오륙도라/흐리락 맑으락함에/몇섬인줄 몰라라」시조의 정형이 간직된채 오히려 자유시를 능가할만큼 언어의 채색이 신비롭고 영롱하다。▼그의 가락은 작곡가 金東振의 감동적인 선율을 타고 우리 가슴을 파고 들며 마음으로 늘 불려졌다。「봄처녀」의 발랄한 서정、은은한 풍경소리같은「成佛寺의 밤」이 들려주는 인생관조、이러한 귀중한 인간의 노래를 우리에게 남겨 주었다。그의 祖國愛는 李忠武公과 安重根의사를 기리는 사업으로 늘 바빴다。대한민국 국민훈장、전국포장、예술원상등 많은 수상은 정력적인 활동의 표징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이시인의 永眠은 한국문학 한세대의 페이지가 접혀짐을 뜻한다。그러나 詩에는「영원한 지금」이 있을 뿐이다。역시 유한한 인생은 끝나도 예술은 오래오래 남는 것이다。「가고파」는 꿈엔들 잊을수 없는 겨레의 고향이 되었다。고인의 명복을 빈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SKYWAY BUSINESS MACHINES
SPECIAL 30% OFF FOR K.B.A. Members
1. 각종전자계산기 수리
2. PAPER ROLL
(Each Case=100 Rolls)
3. NCR STYLE (수동식)

◆캐쉬레지스타 ◆복사기 ◆계산기 ◆각종타자기
SHARP 3M, MITA COPYSTAR, IBM
SALES-LEASING, REPAIRS & SERVICES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B)675-1295~6, (R)671-0938 김 인 환

한인실업인 협회지정

GLOBE
PEST CONTROL
"WE KILL BUGS"
Residential.Comm.Industrial
MONTH FLAT : $8
NO INITIAL CHARGE
※다른조건의 비용청구는 없음
전화주시면 즉시 달려가겠읍니다.
WE'RE SMALL BUT WE'RE GOOD
ASK ABOUT OUR WRITTEN QUARANTEE
GOV'T LICENSED 491-1585 FREE ESTIMATES
789-2527

실협 지정
The professional pest controllers.
pco
Call PCO, to solve your pest problems.
Call : 699-9373
1472 Kingston Road,
Scarborough, Ontario M1N 1R6
P C O Services Ltd. Since 1952

정기이사회 소집공고

회칙 제15조 1항에 의하여 제4차 정기 이사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 아 래 —

일시 : 1982년 9월30일(목) 오후6시
장소 : Inn on the Park Hotel Oak Room (Leslie & Eglinton)
안건 : 1 이사회 각 위원회 보고
2. 82년도 사업보고
3. 82년도 결산보고
4. 83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5. 83년도 예산안 심의
6. 기타

1982년 9월16일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이사장 김 태 진

"이스라엘이 게마옐爆殺"

와파通信보도 爆破장치 檢査결과

【튀니스AP=聯合】바시르·게마옐 레바논 대통령당선자를 사망케한 폭탄을 폭발시키는데 사용된 원격조정장치를 검사해본결과 이스라엘이 이 사건을 일으켰다는혐의가 짙어지고 있다고 팔레스타인의 와파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베이루트발기사를통해 이원격조정장치가 폭발사고가 있은 팔랑헤당사근처의 한건물옥상에서 발견됐다면서 정교한 美製전자장비를 갖고있는 이스라엘만이 中東국가로서는 유일하게 이같은 원격조정장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통신은 이어 문제의 폭탄이 지난14일 故게마옐대통령당선자의 좌석밑에 장치되었다고 덧붙였다。

駐佛 이스라엘 公館 승용차 파리서 爆發…47명이 重輕傷

【파리AP·AFP=聯合】프랑스주재 이스라엘대사관소속 승용차 1대가 17일 하오3시25분(현지시간) 차내에 미리 장치돼있던것으로 보이는 폭탄이 터지는바람에 폭발, 외교관 1명을포함한 이스라엘人 3명, 행인1명등 4명이 중상을입고 인근 카노고등학교 학생 43명이 부상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경찰은 이날 이스라엘人 2명을 태우고 외교관인 아모스만·엘씨(60)가 직접운전하던 프조승용차가 파리중심가인 카르디네街를따라 지나갈때 폭발사고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軍 곧撤收 레바논首相 회견

【베이루트·예루살렘UPI·로이터=聯合】샤피크·와잔 레바논수상은 18일 西베이루트를 완전 장악한 이스라엘軍이 곧 회교구역에서 철수할것이라고 말했다。

와잔수상은 이날 국영베이루트방송과의 회견에서 빠르면 18일경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스라엘-레바논軍 장교회담후 이스라엘이「즉시」철수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中·蘇회담 再開

내달 蘇外務차관 訪中계기

【北京AP=聯合】중공은 다음달 北京을 방문하는 소련외무차관을 맞아 지난80년1월이후 중단된 양국정치회담을 재개할 것이라고 北京주재東歐외교관소식통들이 17일 말했다。

이 소식통들은 정치회담이 예비적이고 실험적 성격의것이나 양국관계정상화회담을 위한 중요한 첫단계라고 지적하고 이번회담은 관계정상화회담과 국경회담의 주요장애로 기주되어온 양국간의 광범위한 문제뿐만 아니라 소련군의 아프간주둔, 소련의 베트남지원등 다른문제들도 다루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데, 大統領에 출마 레바논 穩健마론派

【베이루트AP=聯合】온건한마론파 가톨릭신자인 레이몬드·에데씨가 3번째 레바논 대통령후보로 지명되었다고 레바논관영방송이 17일밤 보도했다。

이방송은 민족연합당(NBP)당수인 에데씨의 주요 정책목표가 이스라엘및 시리아軍의 레바논철수라고 말했다。

레바논의 새대통령은 현엘리아스·사르키스대통령의임기가끝나는 23일이전에 선출돼야한다。

에데씨는 레바논 內戰종식을위한 아랍저지군의 일원인 시리아軍의 레바논주둔에 항의, 지난76년 파리로 자진망명했으며 이스라엘의 레바논개입도 거듭 비난해왔다。

지난14일 게마옐대통령당선자가 폭사당한이후 각派의 대통령후보로는 팔랑헤派의 아민·게마옐씨(40)와 같은 보수파인 민족진보당(NLP)당수인 카밀레·차문前대통령(82)등 2명이 지명되었다。

볼리비아 軍政종식

곧議會부활 政權이양방침

【라파스로이터UPI=聯合】볼리비아 군사령부는 지난80년6월 총선직후 군부쿠데타로 해산된 의회를 부활시켜, 이 의회에 정권을 이양하고 17년여에걸친 장기군정에 종지부를 찍기로 결정했다고 대통령측근소식통들이 17일 말했다。

소식통들은 구이도·빌도소대통령이 고위보좌관들과 이틀동안의 숙의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이날하오 중으로 이에관한공식발표가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80년6월 총선으로 구성된 볼리비아 의회는 루이스·가르시아·메사장군이 주도한군사쿠데타로 3주만에 해산됐었다。

루이스·페나란다 공보상은 대다수의 군사령관들이 의회부활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소식통들은 의회가앞으로 10일후 개원, 새 헌정구성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전했다。

이와 때를같이하여 80년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됐으나 3주만에 쫓겨난 에르난·실레스·수아소씨가 망명지인 페루의 리마로부터 귀국할채비를 갖추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온두라스 게릴라 小銃무장…商議건물급습 閣僚 2명등 2百여人質

【산 페드로 술라(온두라스)AP=聯合】약10명의 左翼무장게릴라들이 17일밤 온두라스 공업도시인 산페드로 술라의 상공회의소건물을 급襲, 이 건물에서 회의중이던 각료2명과 중앙은행 총재등 약2백명의 정부관리와 업계 지도자들을 인질로잡고있다。

경찰은 복면을한 게릴라들이 M16소총과 자동화기로 무장하고 있으며 상공회의소 건물에는 政·財界인사들이 모여 정치·경제문제들을 논의하는 중이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詩壇

얼굴

오동춘

어지러울 정도로
얼굴 많은 세상에
하필이면
당신 얼굴 쏘옥 뽑히어
발갛게
타는 입술로
내게 살짝 옵니까?

가랑잎 깔린 가슴
당신뜻 불 지르면
오, 못견디게 다 오를
저 참사랑의 불꽃

차라리
두렵습니다
오지 마셔요! 당신

고개 저어 지워 봐도
눈을 감고 있어 봐도
시울수록 잊을수록
너더욱 눈부신 당신

내 가슴
재가 됩니다
길이 뜨겁 사랑 재가。

◇人造여우털 재키트 금발의 모델 질리·존슨양이 15일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울월드연가 秋冬복 패션쇼에서 인조여우털로 만든 정가 29.95파운드(약4만원)、푸른 재키트를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런던17日AP特約=聯合】

西獨、株價폭등 슈미트 聯政붕괴로

【프랑크푸르트·런던AP·로이터=聯合】헬무트·슈미트 수상이 이끄는 서독연립정부가 붕괴되자 西獨의 주요주식시장에서는 거래가 돌연 활기를 띠면서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다。

또한 유럽의 주요換市에서 美달러貨는 유럽각국 통화들에대해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으며 금값역시 내림세를보였다。

日히다찌社 상대 美IBM損賠소송

【샌프란시스코UPI로이터=聯合】美IBM컴퓨터社는 16일 산업스파이사건과 관련, 日本히다찌(日立)社를 상대로 수백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민사소송을美샌프란시스코연방지방법원에제기했다。

日5개出版社 正誤정정신청 文部省선 訂正불인

【東京=聯合】일본의 고교역사교과서를 발행하는 9개출판사가운데 우선 三省堂을 비롯한 5개사가(2개사는 현재 검토중) 오는20일부터 10월초순까지의 사이에 역사왜곡기술의 正誤정정을 신청하기로 최종결정했다。

海外토픽

햇빛으로 물分解

★무진장한에너지획득가능

태양에너지 이용법을 연구해온 일단의 미국과학자들이 햇빛으로 물의 분자를 분해시키는 방법을 발견『경제적이면서도 무진장한 화학에너지源』으로 이용할수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의 화학교수인 가보·소모자이씨는 16일 미주리州 캔자스시티에서 열린 미화학학회회의에 제출된 연구보고서에서 태양에너지와 무진장한 천연자원을 이용하여 물분자를 분해시켜 수소와 산소가스를 계속적으로 생산할수 있다고 밝혔다。【버클리(美)=UPI】

投藥잘못 떼죽음

★가이아나 精神病院서

간호원들의 실수인것으로 여겨지는 잘못된 투약으로 가이아나의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15명이 사망하고 다른15명이 중태에 빠졌다고。

가이아나내무성의 의료부문담당관리인 월터·친박사는 가이아나유일의 정신병원인 포트·칸제정신병원에서 이들 환자가 약을 복용한후 마비및 쇼크증세를 일으키면서 이같은 불상사가 발생했다면서 간호원들의 잘못된투약이 그원인인것같다고발표。【조지타운(가이아나)=UPI】

"간디는 나의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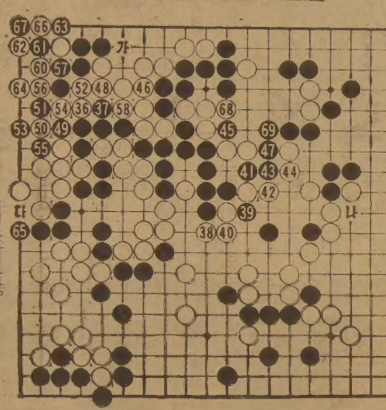
★아라파트, 印대사와 회담서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지도자 야세르·아라파트는 인디라·간디 인도수상을 모든 팔레스타인들의 친구이자「나의 누나와같은 사람」으로 호칭했다고 인도정부가 발표。【뉴델리=AP】

제14기 名人戰 3次予選 決勝

第2局 第9譜 136~169 (각4시간·덤5집반)

白(初段) 崔旭昞
黑(6段) 徐能旭



◇상전은 좌상측의 어마어마한 무대도 白이 불리하고 더구나 白36으로 黑37과 교환한점이 차기 쪽수를 1수 메운셈이어서 崔초단은 거의 절망적이다。하나 여기까지 와서는 옥쇄를 각오한 배수작전에 일루의 희망을 걸밖에 없다。

白38로 1수라도 죄려할때 徐6단은 응수를 잠깐 망설였다。黑39는 白의 집맹점을 피하려면 반발을 … 46、48로 죄어가야 간명하다。그렇지만「달아나는식」의 승부는 徐6단의 구미에 맞지않는 모양。39이하로 수단을 부리며 白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는다。

白、力不足… 投了

白46이 수로 黑47을 강요하고 상변 白을 살리려한다。1분바둑으로 여기까지 수를 읽은것은「대단한실력」이라고 관전하던 Y6단은 혀를 내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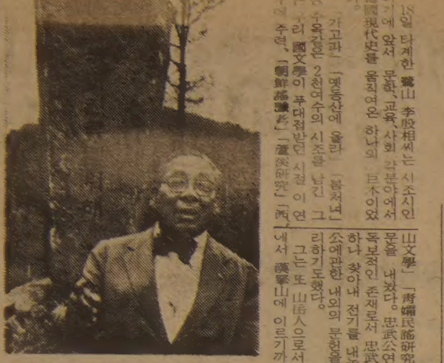
그러다 여기서 黑도 53을 54자리에 잇고 白「가」로 살아가게 해도 다음 黑「나」로 우변을 끊는수가 있어 黑의 승리는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黑53 徐6단은 여전히 수가있는곳은 놓치지 않으려는 식인데 말하자면 최선의 길을 택하겠다는 프로의 본성이랄까。

좌상귀에서 白은 안간힘으로 만들어 또한 '파단'을 꾀했지만 黑의 … 아무래도 역부족。계속해서 패를 따내도 黑「다」의 … 모두 이길수가 없기 때문이다。50이음。

한국 現代史 움직인 巨木

他界한 鷺山 李殷相씨



◇18일 타계한 鷺山 李殷相씨는「돌의 철학」을 중히 여겼다。그래서 67년 南漢山城에 세운 民族道場의 돌에는「내일생 조국과 인류를위해」라는 글이 새겨진 巨石碑를세워놓기도했다。

18일 타계한 鷺山 李殷相씨는 시조시인이기에 앞서 문학、교육、사회 각분야에서 韓國現代史를 움직여온 하나의 巨木이었다。

「가고파」「옛동산에 올라」「봄처녀」등 주옥같은 2천여수의 시조를 남긴 그는 우리 國文學이 푸대접받던 시절 이 연구에 주력、「朝鮮語讀本」「蘆溪硏究」「鷺山文學」「靑丘民謠硏究」등 많은 연구논문을 내놨다。忠武公연구에관한한 그는 독보적인 존재로서 忠武公의 족적을 하나하나 찾아내 전기를 내놓았는가하면 忠武公에관한 내외의 문헌을 섭렵하여 이를정리하기도했다。

그는 또 山岳人으로서 50년동안 鴨綠江에서 漢拏山에 이르기까지 조국의 강산을 편력하면서 산악운동과 향토애를 심어주기도했다。우리 문단은 지난해 月灘의 타계에 이어 또하나의 큰 별을 잃게되었다。

忠武公연구에 獨步的…50개 重職 맡아 활약

「가고파」등 2천여首… 時調현대화에도 공헌

鷺山은 1903년10월22일 馬山에서 교육자이자 장로인 南商 李承奎의 차남으로 태어났다。그의 생가는 鷺飛山에 위치하고있어 나중에 春園이「鷺山」이라는 아호를 지어주었다。鷺山에게는 이외에도 耳公、斗牛星、隱想、杏村洞人、白岳人、一路、之一生등 필명이자 별명이 따랐다。1938년 그가 기자로서 옷을 벗고 白雲山(全南光陽郡)에서 은둔할때는 자기신세를「보따리」에 비유해 李貧達로 자칭하기도했다。

그는 교육자인 부친이 설립한 昌信學校보통과4년과 고등과3년을 마친다음 1년간 모교에서 교사생활을 한뒤 1920년 延專 英文科에 입학했다。그러나 六堂이 일본유학을 권유한 바람에 그는1923년 延專3년을 중퇴한채 와세다(早稻田)대학으로 진학했다。

그가 시조를 쓴것도 바로 그해였다。〈고개를 수그리니 모래씻는 물결이요/배곧 바라보니 구름만 몽기몽기/때묻은 소매를 보니 고향 더욱 그립소…〉라는이 시조는 그해 8월15일 馬山앞바다 加德島에서 지은것이다。

그러나 鷺山이 글을 쓰기 시작한것은 그보다 두해전인 1921년부터였다。그는 東亞日報에「宗敎詩人의 눈에 비친 인생의 悲哀」등 평론과 시를 싣다가 1932년에는 아예 東亞日報에 입사했고 1935년에는 朝鮮日報로 옮겨 편집고문에다 朝光、女性및 少年의 주간으로 일하기도했다。그러나 1938년1월1일자 신문에서「日本軍」을「皇軍」이나「我軍」으로 바꾸어야한다는 총독부의 강요에 사표를내고말았다。

이때는 이미 그와 시조는 문학이라기보다 국민가곡의 차원에서 널리 불려졌을 때였다。그의 시조중 가장 먼저 유명해진 작품은 3·1운동후 얼마만에 鷺飛山에 올라서 지었다는「옛동산에 올라」。3·1운동에서 가버린 인물들(그 큰 소나무)에대한 추모의 정과 새 세대(새솔)에의 희망을 함께 노래한것이었다고 그는 주장해왔다。

그후 대표작「가고파」를 쓴것은 東亞日報에 입사하던해인 1932년。日帝의 억압으로 서울을 떠나 고향에 가고싶었고 나라를 빼앗기기 이전의 자유로운 때로 돌아가고도 싶어 썼다는것이다。10首로된 聯歌형식의 이 시조가 실린「鷺山時調集」이 발간되자 당시 崇實전문2학년생이던 19세의 金東振씨가 여기에 곡을 붙였다。「가고파」는 日帝 강점때만해도 별로 알려지지않았으나 광복후의 음악교육에서 크게 보급되었다。

특히 분단으로인한 실향민들에게 감동을 주어 이 노래는 부동의 국민가요가 되어있다。金東振씨는 원래「가고파」10首중 4首만 작곡했다가 1973년 鷺山의 古稀기념으로 나머지 6首의 작곡을 마쳤다。

鷺山은 六堂이 개척한 현대시조를 詩語、소재、想、句法、章法、作法등에서 더욱 현대적인것으로 완성했다。

그는 이런 詩作외에도 安重根義士崇慕會長、예술원회원、한글학회이사、獨立運動史편찬위원장、李忠武公기념사업회장등 약50개의 중직을 역임했거나 임종시까지 떠맡아왔다。

산악인으로서의 초인적인 건강을 자랑하던 그는 재작년부터 신장염과 방광염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었다。그러나 1980년 7월에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휴전선을 돌아보았으며 지난5월에는 마지막 저술이된「祈願」을 내놨다。「分界線을 밟고」라는 부제가 달린 이 시는 휴전선의 서해끝에서 동해까지 따라가면서 분단의 슬픔을 읊은시조시 42편 2백5수의장편시집이다。

鷺山은 이미 62년 휴전선기행수필집「피어린 六百里」를 낸뒤『언제가 이것을 장편서사시로 만들겠다』고 말해왔는데 결국 임종을 앞두고 이를 실천한셈이다。

그러나 그가 휴전선의 동해쪽 말뚝을붙들고「파도도 울고 나도 울고」하며 읊은 민족의 비원은 언제 성취될것인지 알길이 없다。

〈그래 이것이 피어린 1백55마일/마지막 쇠말뚝이냐/이것하나 잡아보려고/예까지 허위허위 달려왔던가/할말도/동해의 파도소리만/가슴속으로 파고드네〉【梁平기자】

한국국립무용단 공연

KOREAN NATIONAL DANCE COMPANY

캐나다 최초공연!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10월6일(수) 오후8시
10월7일(목) 오후8시

입장권 : $16.50
$12.50
학생과 노인은 $2.50할인

판매처 : RYERSON BOX OFFICE
(10시~6시)
☎ : 595-5088

43 GERRARD STREET EAST

RYERSON THEATRE

노벨文學賞겨냥 飜譯작업

—한국문학진흥재단…金東里소설등

노벨문학상을 겨냥하는 번역작업이 한창 열기를 띠고 있다。한국문학진흥재단 (이사장 毛允淑)은 지난해 노벨문학상 후보작으로 이 재단이 번역했던 金東里의 「乙火」가 후보작품에 올랐던것을 계기로 88년 세계올림픽을 전후해서 우리나라도 노벨문학상을 수상해야겠다는 욕심아래 번역작업을 벌이고있다。85년까지 장편소설 20권을 영어 및 프랑스어로 번역할 예정인 이 재단에서 현재 번역중인 작품은 역시 金東里의 소설 「사반의 十字架」(呂東贊교수번역)와 韓末淑의 소설 「아름다운 靈歌」이다。

지난해에 「乙火」가 노벨상 수상후보작으로 선정됐던 것은 한국측에서 노벨심사위원회에 일방적으로 작품을 보낸것이 아니라 이 재단에서 34권의 번역작품을 도서관에 기증한 것을 읽고 정식으로 추천을 의뢰해 왔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어 더이상 문제삼을 것은 없으나 한작품이나 한작가만을 집중적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범문단적인 작가선정과 작품선정이 선행돼야 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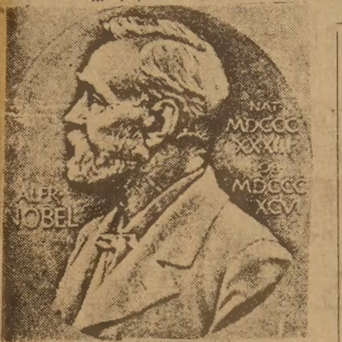
현재까지 영어와 프랑스어로 번역된 작품은 朴鍾和의 「世宗大王」(安正孝역)을 비롯해서 단편집「流失夢」(캐빈·오르쿠번역·孫昌涉의 流失夢등 단편소설 10편수록)、黃順元의 「나무들 비탈에 서다」(張旺祿역)、毛允淑의 「렌의 哀歌」(괴터·玄번역)、「恨中錄」(惠慶宮洪氏·브루스·K·그랜트 번역)、「한국현대詩選」(김재현번역·20년대부터 60년대까지 현대한국대표시인 64명의 작품을 모아 한민족의 詩를 포괄적으로 보여줌)、「현대한국단편선」(한한준·현중식공역·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한국단편을 모은)등이다.

이들 작품은 1백23개국의 1천2백91개처에 배부됐고 이가운데 「乙火」「렌의 哀歌」「恨中錄」등은 미주지역에서 판매중이나 매진돼 재판을 준비중이다. 여기에 쓰여진 예산은 10만8천달러 (우리돈으로 7천6백68만원). 특히 이 재단에서 노벨문학상을 겨냥、번역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배경도 「乙火」가 후보에 올랐던점과 아시아에서는 노벨상이 인도、일본에 이미 수상된바 있고 지금의 추세로 보면 우리나라도 수상대상권에 근접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 사업을 펴고있는 문학진흥재단의 상임이사 성기조씨는 노벨상을 수상하기위한 작업으로는 첫째 어떤 작품을 번역하느냐、둘째 번역된 작품을 어떤 방법으로 세계에 알리느냐、세계 심사위원을 초청、한국을 알리는 방법등을 들었다.

그러나 문단일각에서는 노벨문학상을 타기위해 상품수출식의 과잉 자가선전을 펴는것은 난센스라고 꼬집었다.

出版話題



◇노벨賞 메달

건강食品

생낙지

主成分은 단백질…필수아미노酸 많아

세계보건기구(WHO)의 헌장에 보면 건강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다.

「육체적、정신적및 사회적으로 완전히 양호한 상태를 말하는것으로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건강이란 한 개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건전한 사회를 유지하는데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을 잘관리할 수있는 올바른 지식을 갖고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는 것이다.

목포지방에서는 여름철 맥을 못추는 남성에게 생낙지를 최고의 스태미너 식품으로 추천하고 있다. 꿈틀대는 낙지발이 목구멍을 막거나 창자를 뚫지나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 처음 먹어보는 사람들이다. 생낙지에 맛들인 사람은 「번거로운 요리법이나 양념이 필요없고 깨끗이 헹궈 풋고추 쪽마늘과 된장에 참기름 몇방울을 떨어뜨리면 되므로 손쉽게 즐길 수 있다」고 칭찬이 대단하다.

생낙지의 주성분은 단백질(14.6%)이다. 사람몸에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체내의 단백질은 평상시보다 더 많이 분해되므로 어려움을 견디고 생활하는 현대인에겐 양질의 단백질이 스태미너 식품이 되는 것이다. 낙지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에는 필수아미노산의 함량이 많아 그 영양가가 높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성호르몬의 분비도줄어든다. 따라서 단백질이 모자라는 식사를 하면 스트레스와 섹스에 약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단백질의 결핍은 세포의 재생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세포가 허기져 굶어죽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낙지에도 콜레스테롤이 있으나 참기름·풋고추·마늘등과 어울려 먹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다. 낙지나 문어등에는 특수 성분으로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고유한 맛을 주고있다. ●타우린은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성력(性力)을 도우며 냉감증을 고치는 사실이 밝혀져 마시는 약과 주사약으로까지 개발되었다.

수산연체동물의 근육에서 추출된 타우린은 간의 작용을 도우며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하여 정력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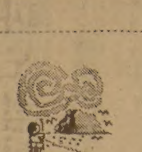
흡반이 달린 낙지발에서 이러한 미약(媚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劉太鍾 〈高大교수·식품과학회장〉

메아리

紀念

金聖佑 〈編輯委員〉



지난 9월3일 南佛의 릴·쉬르·라·소르그라는 마을에서는 詩人 르네·샤르의 기념관 개관식이 있었다. 식장에는 파리에서 자크·랑文化相이 내려와 미테랑대통령의 祝意를 전달했다. 기념관은 이 마을의 18세기때 건물에 이詩人의 원고,所藏品들을 모아 진열한것이다.

르네·샤르는 作故한 사람이 아니라 올해 75세로 생존해 있는 프랑스의 최원로詩人이다. 화가의 경우는 가령 샤갈의것이 니스에 있는것처럼 더러생존자의 기념미술관을 만들고하지만 생존문인의 기념관은 어느나라에서도 과히 흔치않다.

릴·쉬르·라·소르그는 아비뇽에서 23㎞ 거리에있는 인구 1만2천의 小邑이다. 3년전 이마을로 르네·샤르를 찾아갔을때 동네한가운데로 흐르는 소르그川에는 낚시꾼들이 줄서있었다. 그렇게 물이 맑고 공기좋은 시골이었다. 택시 운전사에게 르네·샤르의 집을물으니 두말않고 문앞까지 데려다주었다. 마을에서 한참나가는 들판가운데의 외딴집이었다. 울타리도 대문도없고, 초인종도 문패도없었다. 앞뒤가 밭으로 둘러싸인 이집에서 老詩人은농군처럼 살고있었다. 회견신청의 편지를 몇번 띄웠는데도 회답이 없어서 불의의기습을 했던것인데 그는 두말을 하지않고 책이 가득쌓인 문간방의 서재로 안내하며 친절히 맞아주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세상을 다둘아보고 20여년전부터 태어난고향인 이 마을로 돌아와 정주하고 있노라고 말했다 (대담내용은 한국일보 1979년4월7일자 보도). 일어서려는데그는 지금 이마을에 르네·샤르財團이 생겨 자기 기념관을만들 준비를 하고있으니 거기진열하게 대담기사가 보도되거든 그신문을 꼭보내달라고 했다.

나는 약속을 지켰고 이제 기념관이 생겼으니 한국의 신문 하나쯤이 진열장에 전시되어있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의 원로詩人 鷺山 李殷相선생의 訃音을 듣고 르네·샤르의 기념관을 생각하게 된다.

남의나라에서는생전에도기념관을 만든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작고한 문인조차 기념관이라고 세워진것이 단하나도 없다.

세계각국에서 이름난 문인치고 기념관 하나쯤 안가진 사람은 드물다. 하나만 있는것이아니라 가령 빅토르·위고같으면 파리에 있고 그가 한때 살던빌키에라는 노르망디의 마을에도 있고 「레·미제라블」을 쓴 英領의 섬 건지島에도 있다. 찰즈·디킨즈의 경우는 포츠머드의生家는물론 런던의집,「데이비드·카퍼필드」를 탈고한 도버해협의 小村 브로드스테어즈의 집이 다 기념관이되어있다.

어찌 우리나라 문인들을 세계적 大作家·大詩人과 견주느냐고 한는지 모른다.

프랑스에는 박물관, 미술관、기념관등이 도합 1천2백개나 된다. 그 가운데는 세계문학에 끼지않는 작가의 기념관이얼마든지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의 작가·시인이 어느 세계적 대문호 못지않게 소중한 것이다.

비단 문인 뿐이겠는가. 각분야에서 이름을 크게 빛낸 인물들의 집을 보존하고,또 한개인이아니더라도 유서있는 고을마다鄕土史박물관을만들고하여우리의 역사를 갖고 닦아야한다.

기념관은 반드시 정부의힘을 기다릴 것이 아니다. 대작가의 生家가 기념관이되는것은 어느나라에서나 시민들의 모금으로 건물을 사들여 그 작가의 애호가협회가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국에서는 내셔널·트러스트란는 민간 자선단체가 있어서 회원들의 기부금등을통해 전국의 역사적인 건물들을 매입하여 보존을하면서 일반공개를 한다. 이내셔널·트러스트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대작가들의 生家들을 포함하여 모두 2백개이상에 이른다.

우리는 지금 독립된지 40년만에 기념관을 세울 준비를 하고있다. 우리가 독립기념관을 생각하지않고 지내온동안 그 기념관에 들어가야할 많은 자료의 散逸을 면할수 없었다. 이런뜻에서는 르네·샤르의 기념관을 詩人의 생전에 개관한 것은 현명하다 할수있다.

이미 작고한지 오래인 사람들의 기념관은 어차피 흩어진 자료를 모으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면 우선 늦기전에 鷺山기념관부터 생각해보자。「鷺飛山모롱이는 어린 내 자라던 곳/이봄도 그언덕에 앉은뱅이 피려마는/따담던 그날의 가방은 버린데도 모르겠네」라고 노래한 詩人의 기념관을 鷺飛山 어느 기슭으로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20>

朴婉緒 作 金光培 畵

미리 온 아이㉓

서너장, 기껏해야 여나문장의 연탄이 고작인 남의 부엌을 넘겨다보면서 오목이는 공연히 송구스러웠다. 남의 살림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껴보기도 처음이었지만, 누가 시샘을 할까봐 불안해질만큼 행복해보기도 처음이었다.

그녀는 넉넉한 햇빛에 반해 산동네로 방을 얻으러 다니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줄창 행복했다. 끊임없이 그만의 행복을 의식해야 한는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녀가 아침밥을 짓는동안 일환이는 세수하는 동안만 빼고는 줄창 아기를 들여다보고 있었나보다. 그녀가 밥상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는 포대기를 둥우리처럼만들고 그 안에 아기를 안고 있었다.

아기를 보고있던 그의 눈길이 그녀에게로 옮겨오는걸 그녀는 차마 바로 받지를 못했다. 그녀는 당장 아기를빼앗고싶은걸 가까스로 참으며 눈길만 피하면서 어떨줄을 몰랐다.

「어는새부터 안아주던 버릇돼요」

「버릇되면 어때. 당신 나 없는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말고 아기만 봐야돼, 알았지?」

짧은 순간 그녀는 그의 천연덕스러움을 섬광처럼 뚫고 지나가는 무엇을 본것처럼느꼈다. 아니면 자신의 마음속을 지나간 것일지도.

「오늘 일찍 들어와 연탄아궁이를 좀 손봐야 할까봐? 방이 이렇게 썰렁해가지고서야…」

그가 더운 국을 뜨면서 말했다.

「내가 고쳐볼게요. 그 정도는 나도 할수있어요」

「아기는 어떡허고?대장장이 집에 식칼이 귀하단 옛말 조금도 그르지않군」

「왜요?」

「보일러공 집방이 이렇게 추우니말야. 이 정도의 단칸방이면 하루에 연탄 두장만 가져도 겨우내 바깥날씨 모르고 지내게 할 기술이 내겐 있건만…」

「그게 정말이에요?」

「이 사람이 남편을 뭘로 아는거야?」

「미안, 미안해요. 우리도 집을 지을까봐요. 돈모아서. 당신의 그런 좋은기술을 남들한테만 쓰다니, 나 샘나 죽겠어요.」

「어느하세월에」

그가 어깨를 움츠리며 자신없단는시늉을했다.

「사장님도 그러셨어요. 당신기술이 좋아서 마음만 잡으면 걱정없이 살만하다구요. 당신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난 꼭 쓸데만 쓰고 알뜰히 저축하는것 하나는 자신있다구요」

「사장이 당신 너무 잘봐 큰일이야. 어쩌나 날 고되게 다달질하는지. 당신은 바에도 당신 눈을 하나 두고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을걸」

「어머, 그래요? 고마우셔라. 그 어른까지 그렇게도와주시면 우리가 집장만하는건 문제없어요. 지금 같아선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내집을 갖는다는건 꿈같은 얘기지만, 땅속에서 거저로 살때 생각을 해봐요。그때 같아선 우리돈 내고 떳떳하게사는 셋집도꿈만 같더니 이렇게 이룩됐잖아요?」

「당신 보기보다는 욕심꾸러기군。그 꿈같은 셋집에서 겨우 하룻밤 자고났을뿐이야。새로운 꿈을 꾸기엔 너무 이르잖을까?」

「정말 그렇군요。내가 왜 이러지?」

그녀는 부자연스러울이만큼 몹시 무안을 타면서 어쩔줄을 몰랐다。그녀는 두려워하고 있었다。자신의 즐거운 착각이 앞으로 생길지도 모를 어떤 불행의 전조가 될까봐。

추석대공연

오리엔탈팔레스 8주년기념

여러분의 민요가수

최정자 특별초청쇼

기간 : 9월23일(목)부터 2주간

추석을 맞아 교민여러분께 가수 최정자를 선보입니다.
친구·가족동반하시고 흥겨운 하루를 즐겨주십시요.

희트곡 :
처녀뱃사공등 수백곡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 · 533—1500

경로잔치에도 노년들을 위해서 가수 최정자양이 출연, 민요를 선사할 것입니다.

새로운 악단 : FIREBIRDS

서울하우스

고향의 맛!

한식, 중국식요리 각종음식준비

짬뽕·냉면 짜장면·잡탕밥 전문

615 BLOOR ST. W. ※일요일은 휴업

☎ : 532-0602 김 신우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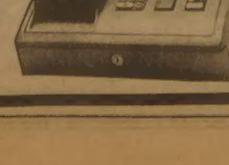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SPECIAL
6주년 기념

SANYO

$595.00



분납 가능
교포 경영
김 성 수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함.
◎ 컴퓨터·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역활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활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VARIETY STORE
주매상 $7,000, Rent $2,350, 4년, 5년옵션, 가격 $75,000
주매상 $11,000, Rent $1,149, 3년, 10년옵션, 가격 $155,000
주매상 $14,000, Rent $3,707, 7년, 10년옵션, 가격 $225,000
주매상 $5,500, Rent $1,970, 1년, 8년, 5년옵션, Asking $50,000

★상용건물
1)Bloor 한인상가에 위치한 4 Bedroom 아파트와 1000SQF되는 새로 단장된 빈 상점이며, 한인을 위한 사업장소로 최적, $55,000 다운, Asking $142,500
2)Dry Cleaning 상점이 있는 대형 3 Bedroom달린 벽돌건물 사업과 함께 매도, 빌딩 가격 $170,000.

★상용건물과 VARIETY
1)Variety 주매상 $7,000 1Bedroom 아파트4채, $200,000 다운, 가격 $430,000(건물+사업)
2)Variety 주매상 $11,000 1Bedroom 아파트5채 $150,000 다운, 가격 $400,000(건물+사업)
3)Grocery 주매상 $6,000 2 Bedroom 아파트2채, $70,000 다운, $255,000(건물+사업)

★TAVERN과 식당
1)년매상 $1,000,000, Rent $3,500, 3년, 10년옵션, $100,000 다운, 가격 $350,000(Building도 따로 팔수 있음)
2)년매상 $260,000, Rent $1,575, 1년, 5년옵션, $50,000 다운, 가격 $14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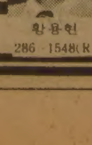
★BAKERY
Hunts Bakery: Shopping Center내에 새로 Open, 매상이 날로 증가, $40,000 다운, 가격 $13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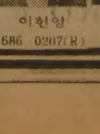
★DRY CLEANING
년매상 $55,000, Ren $1,100, 5년+5년, 가격 $4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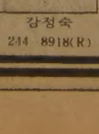
★DONUTS SHOP
1)주매상 $7,000, Rent $3,400, 4년, 15년옵션, 월 $5,000 Net로 과외수입 있음, 가격 $270,000
2)주매상 $8,000, Rent $2,500, 4년, 10년옵션, $150,000 다운, Asking $330,000
3)주6일(일요일 닫음), 하루12시간만 하는 Donut Shop, 년순수익 약 $50,000, 가격 $125,000

★SHOPPING MALL
1)Smoke & Gift Shop 6개월전 Open, 주매상 $4,000, 가격 $55,000
2)Gift Shop및 Hobby Claft Shop 몇개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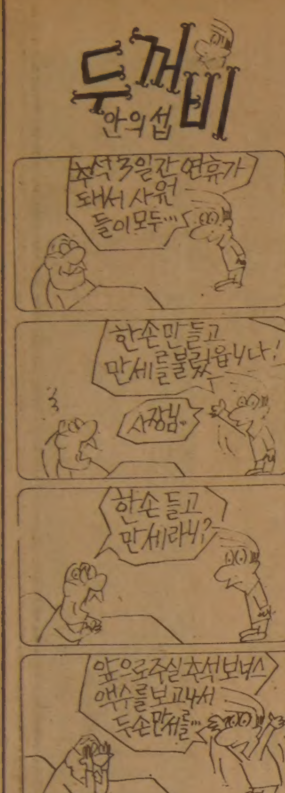
★주택 1)Scarboro 방갈로, 4 Bedroom 지하실이 잘 꾸며짐, Fire Place, Sauna, Wet Bar, 가격 $124,900
2)고급주택 $100,000 $120,000 $150,000 $200,000 $250,000
※이 좋은 조건으로 North York, Don Mill 에리아에 많이 있으니 문의바랍니다.


황용현 286-1548(R)


이헌일 686-0207(R)


강정숙 244-8918(R)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TEL(416)449-8644~5(B) · 286-1548(R) M3B 1Z3



護國전설담긴 神秘의 梵鐘

바다에서 솟아라

月城 海中陵부근 샅샅이 海底수색

선데이 스토리

【慶州=金薰기자】傳說속의 종은 정말 東海의 푸른 물밑에서 잠자고있는 것일까. 1천3백여년동안 이따금 깨어나 물결이 높은 날 왜구의 내습을 경계하여 우룽우룽 울고있었을까. 문공부 문화재관리국은 이 對日호국의 전설이 얽힌 신비의 종을 찾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경북月城郡陽北面奉吉里 신라 文武王 해중릉(海中陵)근처 바다밑을 샅샅이 뒤지고있다.

아직 물밑의 종이 확인되었다는 보고는 없으나 文武王해중릉에서 1㎞쯤 떨어진 感恩寺(신라神文王2년·682년완공)에 있던 큰 종이 왜구에의해 약탈되었다는 문헌상의 기록이 확인되었고 이같은 기록은『물밑에서 神鐘이 운다』는 1천3백년된 月城郡해안지역 주민들의 전설과 연결되는 것이다. 더구나 일본 국내에서 感恩寺종에대한 기록이나 자취가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있어 종을 노략질한 왜구들이 배에 싣고가다가 文武大王해중릉 부근에서 풍랑을 만나 침몰하면서 바다밑에 빠뜨렸을 가능성이 높다.

전설은 왜구가 感恩寺종을 떼어 배에 싣고 奉吉里앞바다를 떠날 때 慶州왕실에서 바다를 노하게하고 잠재울 수도 있는 神鐘의 피리 만파식적(萬波息笛)을 불어대자 물결이 크게 일어 왜선이 침몰했다고 주장하고있다.

"파도심한날 바다에서 둥둥" 住民들은 神鐘믿어

한데 奉吉里해안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이 신비의 종에 관한 이야기는 전설이라기 보다는 생활의 일부분으로 느껴진다.

奉吉里 金海 金씨와 月城 金씨의 집단취락을 이루고 있는 이 해안지역 주민들은 예로부터 半農半漁의 생계를 이루면서 어렸을때부터 해산물 채취를 위해 작살등의 어구를 들고 바다밑을 뒤져왔다.

바다밑 神鐘에 관한 이야기는 주민들의 이같은 물밑 채취의 작업과정 중에서『종을 보았다』는 이사람 저사람의 전언들이 누적되어「믿음」으로써 자리잡게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초기부터 15대이상을 이마을에서 대대로 살아온 金德龍노인(78·陽北面台本3里)의 증언에 따르면 이웃「수재마을」(현 奉吉里 文武王해중릉 앞 해안마을)에「崔씨」라고 기억되는 힘센 장사가 살았는데 이 崔씨가 바다밑에 홍합을 따러들어갔다가 물밑에서「속이빈 쇠뭉치」로 보이는 물체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金노인의 회상에따르면 崔씨는 기골이장대하고 힘이좋아 마을의 어느청년보다도 멀리까지 수영해나가 물밑작업을 했고 거두어들이는 해산물의 양도가장많아 주민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고한다.

崔씨는 특히 해삼들이 많이 붙어 있는 물밑의 한 둥근 물체를 알고있었다는 것이었는데 해삼을 따기위해 칼질을 하면 칼날이 쇠붙이에 닿는 감촉이 전해오면서「둥둥」하고 속이 빈 쇠붙이의 공명음이 울려왔고 이것이「왜구가 노략질해가다가 바다에 빠뜨린 종」이라고 주민들은 믿게되었다는 것이다.

金노인은 그때 마을주민들이 崔씨와 함께 그「종」을 확인하려 바다에 들어가려고했으나 崔씨 만큼 멀리 수영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단념하고말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金노인이 지적하는「목격자」崔씨는 이미 오래전에 작고해버려 崔씨의 肉聲으로「종」의 존재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또 이마을에서 8대째살고있는 金福宗노인(82)의 회상에따르면 어렸을때 奉吉里 文武王 수중릉 앞바다 맞은편 산에서 나무를 하다보면 파도가 치는날은 바다쪽에서부터「엉엉」하고 종이 우는듯한 소리를 여러번 들었다는 것이다.

◇저기에… 金福宗노인이『어렸을때 바다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들었다』며 文武王해중릉(점선)부근 바다를 가리키고있다.【月城奉吉里앞바다=崔東完기자】

金노인은 또 자신의 先代까지만 해도 날이 가물거나, 바다가 심술을 부리면 어른들이 奉吉里뒷산 대나무숲에서 대를 꺾어 피리를 불며 제사를지내는 풍속이 있었다고 전하고 옛新羅人들의 호국의 염원이 서린 전설의 피리 만파식적은 아마도 이대나무숲에서 꺾어 만든 피리일수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수천년을 奉吉里 앞바다에 떠있는 4개의 평범한 바위덩이가 바로 文武王해중릉임이 판명된것은 지난 67년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학술적조사가 있기전에도 이지역 주민들은 아득한 옛날부터 이 바위를「뎅바위」라고 불러왔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있다.「뎅바위」는「大王바위」가 경상도방언식으로 축약된 俗音이었던것.

또 神文王이 父王인 文武王의 해중릉을 참배하기 위해 지은 절인 利見臺(78년 복원)아랫동네인 臺本里 주민들은 선조대대로 자신의 마을을「대밑마을」이라고 부르고있는데, 이는「利見臺의 아랫마을」이라는 뜻으로 利見臺의위치가 확인되기 이전에 新羅人 선조들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마을 이름이라고 村老들은 주장하고 있다.

月城郡해안지방에서 역사적기록은 이처럼 현실과 밀착되어있고 또 사실이 주민들의 전설로 변형된 경우도 있어 전설의 역사적 신빙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있다.

月城郡해안은 토함산을 넘어 慶州로 향하는 전략의 요충으로 왜구들의 잦은 노략질의 대상이 되었고, 삼국을 통일한 文武王은 죽어「海龍」이되어 왜구의 내습을 경계하기위해 이 요충의 바다에 스스로를 수장시켰다.

물밑에 빠져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종은 그의 아들 神文王이 父王의 호국정신을 기리기위해 인근에 感恩寺를 짓고 이 절에 매달아 놓았던 종이다. 신라의 호국염원인 이해안에서 왜구가 빼앗아간 感恩寺종이 발견된다면 에밀레종보다 제작연대가 오랜 국내最古의 종이 될것이고 또 對日 호국정신의 가장 오랜 표상이 될것이라고 문화재전문가들은 보고있다.

藥品인가 飮料인가

製藥界총아、메이커 간판商品에 문제있다

드링크類

아무데서나 팔고 濫用도

"간장強化·피로회복"등 否定的

드링크類는 약품인가 식품인가, 또는 음료수인가. 해묵은 논쟁이 속시원하게 풀리지 않은채 드링크類는 해마다 계속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보사부 관계자들은『드링크류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라는 점은 우리나라 의약품 생산의 후진성을 나타내고 있는것이다』고 지적하고「약품」이라는 드링크류를『손님접대용으로 쓰거나 소주에 타먹는 행위같은 것은 약품남용의본보기』라고 우려했다.

18일 보사부집계에 따르면 금년도상반기중 5억원이상 생산실적을 올린 1백56개 주요의약품 중에서 박카스D가 2백37억원어치가생산돼 수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원비D가 84억원어치를생산, 2위를 차지했다. 알프스D도 28억원어치로 랭킹8위를 기록했으며 그밖에도 구론산바몬드가26억원으로 제11위를차지하고있어 드링크가 의약업계의 총아임을재확인시켜주고있다. 이들 드링크류는 생산실적의 순위가 높을뿐 아니라 생산절대량도 해마다 증가, 박카스D는 작년동기보다 29%가 늘어났고 소화제인 맥소롱내복액은 무려 68·7%가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국민의 드링크선호경향을타고 많은 제약회사들이 60년대초부터 큰 이익을 올려 자본을 축적할수 있었고 드링크류는「간판상품」으로 각 메이커들의 총애를받아왔다. 밤일을 하는 택시운전사들이 피로에 지쳐 새벽에 약국앞에 차를세우고 드링크류를 마시는 모습을 흔히 볼수있고 역시 밤샘을 하는 경찰관이나 소방관들도 이드링크류를 박스로 사서 서랍에 넣어두고 내방객들에게 내미는것이「손님접대」로 되어있다.

또소주에다드링크류를타서 먹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소화제인 맥소롱내복액(상반기생산실적 14위)까지도 소주와 섞어 마시기도한다. 일부 간이음식점에서는 소주와 맥소롱을 섞어마시라는 광고를 아예 벽에 붙여놓은 곳도 있다.

그러나 메이커만 재미를 보고있는 것이지 소매약국들은 이익폭이 아주 적어 취급하기를 꺼려하지만 고객들이 찾기때문에 할수없이 팔고있는 실정이다.

현재 보사부 약무당국에등록되어있는 드링크는「약품」으로 되어있다. 보사부 당국에 따르면 이드링크류는「간장기능을 강화,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약리작용을 갖고있다는 것인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신빙도는 극히 부정적이다.

「藥」으로 등록된 이드링크류는 용기의 포장에「간장강화」「숙취및권태감 제거」등 藥의「효능」을 선전하는 문귀를 적당히 써넣을수 있다. 또 이같은 약품 드링크류는 약국에서만 팔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드링크류는 여기서 끝나지않는다. 전국 邑·面의 지정버스터미널 구내매점에는「藥」이 아닌 드링크류가 쌓여있다.

코카스등 일반매점에서 파는 이드링크류는 보사부식품당국에「청량음료」로 등록이 되어있다. 이청량음료 드링크류는「藥」이 아니기때문에 용기 포장지에「효능」을 선전할수없고 함량과 성분만을 써넣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약품」드링크류와「식품」드링크류는 성분은 다르나 용기모양이나 상품명이 비슷비슷해 일반소비자는 약품인지 식품인지 구별하기 곤란하다.

60년대초이후에 대제약회사들은 앞을 다투어 드링크류를 생산, 치열한 선전경쟁을 펼쳐 드링크류의 전국시대를 펼치기도했으나 지금은 선전을 하지않는다.

보사부 당국이 약품남용을 막기위해 드링크類를 비롯한 의약품의 선전을 제한한 이유도 있겠지만 이미 나름대로 판도가 굳어버렸다고 보기 때문이다.

보사부 당국자는 드링크류를 선호하는 연령층이 주로 60년대에 드링크류의 선전세례를 받은 40대 이상 연령층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일부 드링크메이커들이「식품」드링크를 내놓고 있는 것은「약품」드링크류가 쇠퇴한이후의 시장을 계속 장악하기 위한 작기간 영전라에 의한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다른 당국자는 일본에서는 오래전에 유행이 끝난 드링크류가 계속 상승세를 타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하루빨리 우리의약계가 후진성을 탈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都心치과 "非常"

3人組강도에 곳곳털려

서울시내 중심지 치과의원을 노리는 3인조 강도사건이 잇달아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14일 하오5시10분께 서울鍾路區公平洞124 우일빌딩3층 金유봉치과의원에 20대초반의 청년3명이 환자를가장하고 들어와 과도로 의사金씨(53·여)와 간호원 鄭모양(23)을 위협, 미리준비한 공업용테이프로 두사람의 손발을 묶고 입을봉한뒤 손금고에서 현금20만3천원과 일제손목시계 1개등 27만여원어치의 금품을 털어 달아났다.

또 지난 7월26일 하오6시30분께도 서울鍾路區鍾路3街 金모치과에도 20대청년3명이 들어와 의사金씨(42)와 간호원 尹모양(22)등을 같은 수법으로 위협, 20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털어 달아난 것을 비롯, 지난2월부터 鍾路와 西大門일대의 7개치과 의원이 피해를입었다. 경찰은 범인들의 인상착의가 같고 범행시간및 수법등이 비슷한점을 미루어 동일범의소행으로 보고 18일 수사전담반을 설치했다.

한편 서울시 치과의사협회는 잇단모임을 갖고 경찰에 조속한 범인검거를 요청하는 한편 치과의원마다 출입문에 2중 자물쇠와 보안용 외시경을 설치하는등 자체방범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水產青果시장 專務등 5명拘束

賃貸料등 1억횡령

서울지검 南部지청은 18일 서울銅雀區鷺梁津洞 수산청과시장(대표 朴炳憲·54·冠岳區奉天洞661의46)전무 洪淳元씨(58)、전 총무부장 朴哲鏞씨(51)、감사 金錫胤씨(55)、총무부차장 李鍾寬씨(49)등 4명을 공금횡령및 배임수재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이회사대표 朴씨등 간부3명을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초 수산청과시장내의 6백24개의 소매상좌판을 상인들에게 수협배정하면서 위치가좋은 19개좌판을 시장의 주요통로로 사용해야한다는 명목으로 배정에서 제외했다가 상인 柳錦順씨(여·45)등 19명의 상인에게 배정하고 1인당 2백~3백만원씩 모두 1천5백만원을 받아 나누어 쓴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10월부터 지금까지 시장내 휴게실、구내식당등으로부터 거둔 시설임대료및 관리비 1억1천3백여만원가운데 9천6백여만원을 회사에 입금시키지않고 생활비등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종교서관
535-1920
서적판매및 대여
일반서적
다량입하
월~토: 오전10:30~오후7시
714 BLOOR ST. W.

旅行社직원도手配

愛情행각 變造여권 理事와 介入

【속보=韓昇熙씨·李俞政양의 愛情행각사건을 수사중인 서울西部경찰서는 18일 모항공사 영업부사원 金昌經씨(42·서울道峰區月溪洞月溪아파트11동402호)가 이사건에 관련있는것으로 보고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에 의하면 수배중인 범양항공사영업이사 尹興老씨(38)가 달아나기전에『나는 비행기표만 주선해주었을뿐 金씨가 李瀓씨(수배중)와 韓昇熙씨를 연결시켜주었다』고 부하직원들에게 말했다는것. 金씨는 尹씨가 수배되자 17일상오 집에서나간뒤 자취를 감추었는데 金씨도 여권변조조직의 일원일가능성이 있는것으로 경찰은보고있다.

한편 경찰은 韓昇熙씨에게 여권을 만들어준 조직이 지금까지 수배된 7명외에도 2~3명가량 더있는것으로 보고 이들을 추적하고있다.

韓昇熙 보석금 50만弗로 확정

【덴버(美콜로라도州)AP·UPI=聯合】미스서울 李俞政양을 납치한 혐의로 美연방법원에 기소된 韓昇熙씨의 보석금은 50만달러로 결정됐다고 로이스·시글러美연방법원 판사가 17일 밝혔다.

시글러판사는 또 韓昇熙씨가 또다시 자살을 기도하지 않도록『보호조치로』덴버 제너럴병원의 보안병동에 수감할것을 지시했다.

韓씨는 체포된 다음날인지난12일 리틀턴교외에 있는 어래퍼호군도소에 수감중 손목을 긋어 자살을 기도했었다. 시글러판사는 또 韓昇熙씨에대한 예비심리날짜를 24일로 결정했다.

作業場서 담배피워 雷管공장 爆發원인

【속보=서울道峰區 放鶴洞 治山화공 폭발사고 원인을 수사중인 서울 北部경찰서는 공장장 馬舜清씨(59)가 작업장에서 작업지시를 하면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회사경비원 崔東河씨(57·서울道峰區放鶴2洞536의1)의 진술에 따라 馬씨가 담배꽁초를 화약통에 잘못던져 폭발사고가 일어난것으로보고있다.

이회사 사장 李潤麟씨(60)와 화약주임겸 부공장장인 金相楫씨(27)를 업무상중과실치사상혐의로입건했다.

경찰은 지난6월에도 같은 작업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이회사종업원한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사실도 새로이 밝혀내고 그후 안전보완조치가 제대로 안된점등 감독소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있다.

億臺 도박판 5명 붙잡아

【光州】光州경찰서는 18일 光州시내와 海南지방을 돌며 억대도박판을 벌여온 李泰文씨(48·海南郡黃山面富谷里)와 趙成五씨(43·海南郡海南邑坪洞里182)등 5명을 상습도박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10월부터 지난8월사이 光州市東區不老洞 S호텔과 海南등지의 여관등을 무대로 1회에 20만~30만원짜리 속칭도리짓고땡 도박을 5백여회 벌여온 혐의를 받고있다.【光】

鐵馬인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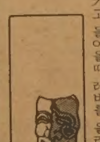
清凉里驛 신호기조작 金貞奎씨

"요즘 젊은이 鐵道떠나는것 가슴아파"

역구내에서 기차를 연결하고 신호기조작을 하는일로 36년6개월을 근무해온 金貞奎씨(53·사진·서울清凉里역구내원)는 18일 생애최고의 날을 맞았다.

평생을 부지런히 외길로 철도에서 살아온 공로로 83회 철도의날인 18일 정부로부터 玉條勤政훈장을 받은 것이다.

金씨는 17세인 45년4월 水色역에 취직, 철마와 인연을 맺었다. 그로부터 32년을 清凉里역에서일했다. 그가 해온 일이란 기차가 들어올때 레버를 올려 신호를 내보내고 열차를 연결시켜주는 남들이 쳐다보지도않는 잡일로 고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업무였다.



金씨가 한창 나이일때만 해도 기차는 석탄을 때며 가는 칙칙폭폭 차였다.

특히 清凉里역은 원목, 잡화, 무연탄을 실은 기차가 많이들어와 매일이다시피 사고가 날때였다. 손으로 기차를 연결하다가 동료끼리 사인이 안맞아 손이 싹독잘리는가 하면 철로에 깔려 숨지는 일이 흔했다.

金씨도 28년전 열차에서 떨어져 죽을고비를 넘겼다. 야간작업을 하던중 움직이는 화물칸에 탔다가 철로에떨어졌는데 의식을잃은채 보름을 병원에서 치료받았단다. 이후부터 철도일은 그만두라고 애걸했으나 金씨는 거동이 가능해지자 다시 清凉里역으로 돌아갔다.

36년간 근무한 지금 그가받는 월급은 35만원쯤된다. 취직당시 쌀두말값을 월급으로받았던 그는 박봉에 익숙해서인지 지금도 월급의 가치를 쌀로잰다.

이땅에 鐵馬가달린지 83년, 기차도 많이발달했다. 석탄을때는 증기기관차에서 디젤차로, 다시 전철화로 치닫고있다.

따라서 金씨가 하는 일도 손에서 기계로, 다시 버튼으로 바뀌었다. 그가 일하는 清凉里역도 이제 현대적 설비가 완비됐다. 기차가 드나들때 철로위를 뛰어다니며 신호기조작을 했던 金씨는 이제 조작기앞에 앉아 단추만 누르면 된다. 몸은 그렇게 편하나 눈으로만 일을하니 불안하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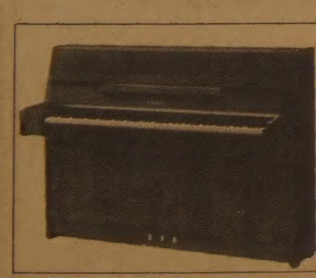
『철도는 사람몸으로 따지면 동맥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젊은이들이 철도를 멀리하고 떠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현대화라는 것이 그에게는 휴머니즘의 不在를 뜻하는 모양이다.【金畜宗기자】

5주년 개업기념 스페샬

★기 간: 9월1일~9월30일

10~30% OFF



CX-4 Walnut(open pore)
CX-4 Ebony Polish
$2,995(Reg.)

DX300 $3,495-R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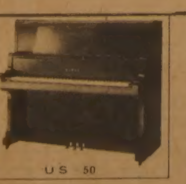
DX80 〈Reg〉 $1,595

DX90 $1,895-REG

DX100 $2,395-REG
DX200 $2,995-REG

⊙새로 도입된 DX전자올갠 전 모델(10% -15% off)
⊙각종 신형 Model의 upright 및 그랜드 피아노(10% -15%)
⊙기타 USED피아노및 전자올갠(30% 할인)

◉KS3F(50 인치)
Ebony polish
Reg. $4,995
◉UST7(46 인치)
Reg. Ebony Satin $3,995
Walnut Satin $4,095



◉US 50 (52 인치)
Reg. $5,995

◉CE7N open walnut $3,395
Reg. Walnut polish $3,595
ivory polish $3,995

◉KL32WG(52 인치)
Reg. $6,495
◉KL 502(49 inches)
Walnut Satin
Reg. $4,995
32 WD.

Markham Place
2900 Steeles Ave. E.
Thornhill
☎: 881-8211

Hill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 883-9407

가와이 KEYBOARD CENTRE (모짜르트 MUSIC CENTRE) 대표 윤 호 섭

方駿榮, 접영百m 한국新

대통령旗수영

趙斗熙기록을 0.45단축

男子部

崔允喜(사대부여중)가 배영2백m서 한국신을 추가, 여자배영의 1인자로 자리를 굳혔다. 또한 남자접영 1백m서는 方駿榮(경기고)이 한국신기록을 경신, 라이벌 趙斗熙(한체대)와 엎치락 뒤치락 치열한 기록경쟁을 벌이고 있다.

崔允喜, 배영2百m도 한국新

崔允喜는 18일 잠실수영장에서 속행된 제1회대통령기쟁탈 전국수영대회이틀째 여자2백m결승서 2분21초53으로 지신의 기록을 0.25단축하며 한국신기록을 추가했다.

한편 남고 접영1백m서 方駿榮은 59초09를마크, 20일전 아산기대회서 趙斗熙가 세웠던 한국최고기록(59초54)을 0.45초단축, 선두자리를 되찾았다.

方은 아산기대회서 59초71로 1분벽을 깨뜨리며 趙五連의 기록을 5년만에 경신했으나 하루뒤 趙斗熙에의해 무너졌었다.

◇한기신(제2일)

▲여중배영2백m결승=崔允喜(사대부여중) 2분21초53(종전2분22초18) ▲남고접영1백m결승=方駿榮(경기고) 59초09(종전59초54)

崔上鎬 우승

프로골프 閉幕

제25회 프로골프선수권대회가 18일 富平컨트리서 폐막, 崔上鎬(한양)가 2백81타로 우승, 오란씨, 수원오픈에 이어 3개대회를 석권했다. 한편 여자부서는 具玉姬(한양)가 2백95타로 우승했다.

"프로選手五輪출전"

國際테니스聯 결의

【아카풀코(멕시코)聯合】 국제테니스연맹(ITF)은 88서울올림픽에 젊은 우수프로테니스선수들의 출전을 허용하도록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강력히 요청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연례회의를 폐막했다.

국제테니스연맹의 이같은 결정은 蘇聯·中共·체코슬로바키아를포함한 54개국대표 전원의 지지를 받았다.

필립·샤티에 ITF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내주 후안·안토니오·사마란치 IOC회장과 만나 ITF의 이번 결정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IOC가 ITF의 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젊은 프로 테니스선수들은 88서울올림픽에서 메달을 놓고 경기를 벌일수 있게된다.

87世界力道 체코서

IWF총회 결정

【류블랴나(유고)=聯合】 국제역도연맹(IWF)은 17일 이곳에서 총회를 개최, 오는87년의 제40회 세계 역도선수권대회를 체코에서 개최키로 결정했다.

國家상징등 사항

單一법률로 格上

지금까지 大統領令이나 告示등에 분산, 규정돼있는 國號, 國旗, 나라紋章등 나라의 상징에 관한 사항이 앞으로는 單一법률에 格上, 규정되게 됐다.

아시아水準도 멀다

한국水泳 戰力…現住所(上)

한국新 올들어 37개 냈지만…

男배영2百m 日여자記錄에 뒤지기도

選手層·訓鍊등부족…기록更新폭 좁아

아시안게임 앞으로 2개월. 한국수영은 마지막 기록경신에 피치를 올리고 있다.

17일부터 3일간 계속되고있는 제1회 대통령기대회에서 4개의 한국신기록이 수립된것을비롯, 올들어 만도 37개의 한국신기록이 작성됐다. 앞으로 전국체전을 남겨놓고 있어 작년의 25개에 비해 큰 수확이다.

그러나 量的인 증가에비해 質的향상이 따르지못해 문제가 되고있다.

70년, 74년 趙五連이 아시안게임서 남자4백m와 1천5백m를 석권한 이래 한국수영은 세계수준은 물론 아시아수준과도 점점멀어지고 있다.

그나마 신기록도 편중현상을 보여 여자 자유형, 배영등에서는 올들어 4~5회씩 기록이 경신되고있으나 평영에서는 77년, 80년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는 답보상태.

남자자유형의 2백, 4백, 8백m는 8년전의 趙五連 기록이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있으며 자유형1천5백, 접영 2백, 개인혼영 4백m도 4~5년전의 기록을 깨뜨리지 못하고있다. 아시안게임서 육상다음으로 많은 33개의 금메달이 걸린 수영서 한국이 몇개의 메달을 따낼수 있을까.

아시아에서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과 중공의기록을 비교해 볼때 금메달획득은 하늘의 별따기. 그나마 메달획득을 기대해보는 종목은 崔允庭·允喜자매의 주종목이자 일본의 취약종목인 여자배영 1백m와 2백m뿐.

崔允喜가 17일 세운1백m기록은 允庭의 기록을 0.01초 단축한 1분06초F.

8월말 끝난 全일본선수권대회겸 아시아경기파견선수선발전서 3년만에 기록을 깨뜨려 각광을 받고있는 여중3년의 신예 마에다(前田)에 0.66초 떨어지고있다.

이 대회기록과 비교한다면 允喜와 允庭(1분06초01)은 2위 淺利의 기록에는 1분06초14에 근소한 차로 앞서고있으며 중공 張志欣의 기록 1분07초80에도 앞서고 있다. 그러나 수영의 다크호스인 싱가포르와 필리핀이 어떤 기록을 내놓을지가 두자매의 메달획득에 큰 변수로 작용할것이다.

2백m서는 崔允喜의 2분21초53이 일본 최고기록 2분17초63(三浦直子)에 훨씬 못미치고 있으나 일본선수권대회에 나타난 기록은 前田이 2분20초22, 2위 淺利가 2분22초38로 앞으로의 기록경신여하에 따라 메달을 바라볼수 있을것같다.

자유형과 평영, 접영, 개인혼영등은 5위권도 넘겨볼수없는 한심한상태.

남자경영의경우 더욱 암담한 형편이다. 상위입상은커녕 7년전 趙五連의기록이 그대로 유지되고있는 자유형8백m는 일본의 여자기록 9분8초19에도 5초이상 떨어지며 李忠原이 지난7월 3년만에 경신한 배영2백m최고기록도 일본여자기록보유자 三浦直子에 2초가까이 뒤진는부끄러운 현실이다.

한국수영이 계속 기록경신을하면서도 아시아무대에서 낙후되는것은 기록경신 폭이 너무좁기때문이다.

일본과 비교해볼때 이번시즌 한국의신기록은37개, 일본은 32개로 한국이 앞서지만 기록경신의폭은 토끼와 거북이경쟁과 비교될 정도로 한국의 기록향상템포가 느리다.

한국수영의 기록단축이 미미한것은 선수층이 엷은데다 장래성있는 신진선수들의 부족, 혁신적인 훈련방법및 투자의 미비때문으로 지적되고있다. 【鄭爽根기자】

◇여 자 기 록

(9월20일현재)

		한국기록		일본기록		일본선수권(82년 8월)	
자유형	1백m	1분01초92	崔允庭	57초55	簗瀬	58초32	簗瀬
	2백m	2분12초72	崔允庭	2분04초06	齊藤	2분04초45	簗瀬
	4백m	4분35초74	李始恩	4분24초86	齊藤	4분24초86	齊藤
	8백m	9분21초11	李始恩	9분08초19	關戶	9분8초19	關戶
배영	1백m	1분06초F	崔允喜	1분05초34	前田	1분5초34	前田
	2백m	2분21초53	崔允喜	2분17초63	三浦	2분20초22	前田
평영	1백m	1분19초09	金會子	1분12초21	長崎	1분13초56	長崎
	2백m	2분49초16	梁貞和	2분35초29	長崎	2분36초69	長崎
접영	1백m	1분05초40	金昑希	1분00초89	伊勢	1분01초30	久米
	2백m	2분18초49	金昑希	2분11초96	久米直子	2분12초79	久米
개인혼영	2백m	2분29초71	崔允喜	2분22초40	伊勢	2분23초02	大崎
	4백m	5분12초50	李始恩	5분02초32	關戶	5분02초32	關戶
혼계영	4백m	4분38초46	상명여고	4분14초60			
계영	4백m	4분18초82	상명여고	3분57초26			

永東高, 2승 先頭에

長官盃중고핸드볼 大邱경원高 완파

昌文여중도 2승

上仁川여중에 12·10辛勝

18일 水原高 체육관서 속행된 제10회체육부 장관기쟁탈 전국남녀중고 핸드볼 대회3일째경기에서 서울의강호 永東高는 대구 경원고를 27-12로 완파, 2승으로 C조 선두에 나섰다. 한편여중 A조서는 昌文女中이 上仁川女中에 12-10으로 신승, 2승을 올렸다.

◇3일전적

▲남고C조

영동 27-12 경원
(2승) (2패)

▲남중B조

광운 12-12 서대문
(1승1무) (1무)

▲동C조

중화 17-11 반포
(2승) (1승1패)

▲여중A조

충주북 8-2 휘경
(1승1패) (2패)

창문 12-10 상인천
(2승) (1승1패)

▲동B조

안락 17-6 안동
(1승1패) (2패)

◇제2일 전적(17일)

▲남고B조

능인 26-19 마포
(1승1패) (2패)

▲동C조

의성공 20-17 경원
(1승1패) (1패)

영동 19-16 청주기공
(1승) (1승1패)

'기요틴을 부활시키자'

佛각계, 테러 잇달자 요구

최근들어 프랑스에서 테러사건이 극격히 늘어나 1년전 폐지된 기요틴을 부활시키라는 요구가 각계에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난21일 反美테러폭발사고로 동료경찰관 1명을 잃은 프랑스 경찰의 3개노조는 「경찰관의 희생을 막기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줄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

중도파인 피에르·살비 상원의원도 테러범을 중형에 처하기위한 강력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면서 오는 가을 상원에서 사형제도 부활문제를 논의할것을 제의했다고.

지난 7월20일이후 지금까지 프랑스에서는 18건의 테러사건이 발생, 9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부상했다고. 【AP】

배모형의 순금을 찾아라

백만장자 보물찾기 놀음

지난1912년 캐나다 뉴펀들랜드근처의 대서양에서 침몰, 1천2백13명의 사망자를 낸 호화여객선 타이타닉호의 순금모형을 만들어 숨겨둔뒤 찾는 사람에게 갖게할것이라고.

작년 여름의 타이타닉호수색작업에돈을 댔던 미국의 석유백만장자 잭크·그림씨는 2만5천달러짜리 타이타닉호 순금모형을 내달초 미국이나 캐나다의 모처에 감춘후 실제 타이타닉호에 대한 수색작업을 상세히 묘사한 작가 윌리엄·호프먼의 「불가능에 가까운 ─타이타닉호 수색」이란 책을 통해 그 장소를 암시해줄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미중앙정보국(CIA)부국장이자 암호해독전문가인 조지·오툴씨가 이 순금모형이 발견될때까지·매달 단서가 될만한 자료들을 모아 그 내용을 발표, 보물찾기를 도울것이라고. 【聯】

533-2361

성난벌떼 마을습격

27명入院 2명重態

미국 뉴저지주 글루체스터의 한 아파트단지에서는 최근 수천마리의 성난 벌떼가 주민들을 마구 쏘아대는 공상영화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바람에 27명이 입원을 하고 그중 2명은 최소한 1백군데나 쏘여 중태에 빠지는 대소동이 일어났다.

벌통을 가득 싣고가던 트럭이 부주의로 벌통1개를 아파트앞 길바닥에 떨어뜨림으로써 일어난 이 사고로 아파트단지는 순식간에 비명으로 가득찼고, 한 남자는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온통 벌에 쏘는 곤욕을 치르기도 했는데, 경찰은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고 휴대용 스피커까지 동원, 긴급대피방송까지 하는등 법석을 떨었다.

경찰은 여왕벌 1마리를 미끼로 사용하여 약 5시간만에 성난 벌떼를 모두 벌통속으로 유인해 넣어 가까스로 소동을 진정. 【聯】

白虎 3마리 탄생

美동물원에 큰 慶事

지구상에 50마리밖에 존재하지않는 희귀종으로 알려진 白虎(하얀 호랑이) 3마리가 19일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동물원에서 태어나 동물원당국이 기뻐하고있다고.

감사말씀

금번 저의 식당은 타사업관계로 스텍하우스로 음식종류를 바꾸어 메니저가 운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지도 성원하여 주시고 찾아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케네디안음식으로 바꾸게됨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저의 식당은 9월30일까지만 종전대로 영업합니다.

Choi's Restaurant

최영호 배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짬뽕·짜장면
해장국·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531-0277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가수: 김미리자
BAND—기타: 신상철
올겐: 함효상
드럼: 권순근

월~목: 오후2시~새벽2시
금: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1618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한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동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교회안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8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30 영어설교 오후1:30 오후 2:00 금요저녁 9: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시민교회	조성관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 밤9시 유년중고장년모임: 3시 20분	662 Pape Ave. Tor	266-4918
대한교회	조남유	주일오후 2시	3819 Bloor St. W.	621-6340
순복음토론토	이필주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 8: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메시아한인교회	조창환	주일오후 1:30 영어예배 12:30 새벽기도 6:00 (오전)토, 수요예배오후 8	1580 McCowan Rd.	298-1876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30 주일 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주일낮 11시 수요예배 8시 주일찬양예배7시 주일새벽기도 6시	135 Briscoe St.E.	68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오전11:00 금요기도 밤10시 주일오후 1:00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적춘수	주일오후 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30 토요기도 밤7시 성경공부 2:40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00 주일오후 1:00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30 수요오후 7:00	7 Gretna Ave.(Victoria Pk. &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수요새벽5:30 중고등영어 오후1시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선교교회	강제철	주일오후 1:00	1 Greenland Rd.	444-8002
서머나감리교회	박준하 김옥희	주일영어 1:00 주일성경 1:00 주일예배 2:00 수요예배 8:00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Ont.	498-7960 752-9860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평일기도 오후2시 토요집회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Tor.	698-5363
베다니성결교회	김요환	주일오후 1시 성경공부 주일 오후3시	2799 Weston Rd.	248-9709 248-1653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예배 11:00 12:30 수요오후 7:30 토요일오후7시30분	1239 Jane St.& 1384 Weston Rd.	248-4130 233-2266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성경공부	1272 Weston Rd.	242-4964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10:30	126 O'connor Dr. at Pape Ave.	423-9880 423-8400 (복음다이얼)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8:00 주일오후 4: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일요오후 2:0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 감리교회	여웅순	주일오전11:00 금요예배 7:30	2385 Warden Ave.	444-8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웅출	주일오전11:00 주일오후 1:00 금요오후 7:30 (영어예배)	68 Collinson Blvd. North York	755-9766 636-1724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한인중앙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9:00	502 Bathurst	961-8361 전화설교
천주교회	고종옥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439 Dundas St. E.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수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446-1211
키치너 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 1:30	54 Queen St. 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00, 수요오후 7:30 T.V. 예배 8:30~9:00A.M. CH. 79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 3: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KIM'S ART GALLERY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 유화·서양화
◉사진액자 전문으로 취급
◉동양화·초상화
1286 Weston Rd.
(에그링톤×웨스톤)
(B)243-0233 (R)651-2261 김 석환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트로피·감사패 전문
Golden Craft
◉특수인쇄(Silk Screen Printing)
◉ Engraving
◉간판 취급
(나무·유리·의류·프라스틱등 특수인쇄 전문)
1700 Wilson Ave.
(B)247-8870 (R)242-4319 김 국일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집수리·신건축·목수일" 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언제라도 전화 상담 환영.
전화 : 669-5784 (Mr. 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부-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인유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광고문의 ☎ : 533-2361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 — 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마련.
전화 : 532-1054(아리랑식당 옆)
712 Bloor St. W. 김 덕 기

서 울 식 품 (동부)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때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실내장식

"Fine Design"
설계및 허가, 시공
전화 : 622-5328 (공장) 676-1173 조 덕 남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어떤 광고가 필요하십니까?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광 고 접 수
533~2361

운동구점

브렌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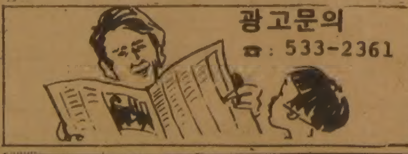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37 Primrose Ave. Toronto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전학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케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226-3874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 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경명등 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R)531-4165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 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귀하의 기업을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치대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회계사무소
33 Cherryhills Rd. Concord. Ont.
전화 : 669-271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8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531–4165(R), 530–0522(B).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유경험자 Cashier구함
261 Scarlett Rd.
(at Eglinton Ave. W.)

(Variety & Grocery)
성실한 가게 Helper 구합니다.
전화 : 769–5956

남자 파타임 가게 헬퍼 구함
(Finch × 웨스톤 근처)
전화 : 741–1465

좋은사람 찾음(Gain)
877 Dundas St. W.
Batharst 서쪽 300여m거리

웨이트레스 구함.
Full Time 또는 Part Time
전화 : 656–0456, 654–6609

룸메이트

Room Mate 구함
5 Capri Rd. 오후 2시 전에 연락바람.
전화 : 622–3065 Miss Kim

기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636 Vaughan Rd. #1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 (Mrs. Adroe)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여권

성명 : 김우경
여권번호 : T.R.W.000768
연락처 : 469–2082 750A Broadview Ave.

구혼

결혼상담,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 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최·김

25세 미혼여성. 신체건강하고 착실한 남자분 연락바람(현재 가족들이 Toronto에 거주)
전화 : 431–6474

구직

바쁘신분들을 위하여 저의집에서 어린이들을 정성껏 보아드리겠읍니다. (스카브로 지역)
전화 : 264–3700 (Mrs. Lee)

베비시터

입주하셔서 어린애들(1살반, 3살반)봐 주시고, 약간의 살림도와 주실분.(나이아가라폭포 근처) 가족처럼 지낼것은 물론 최고의 대우를 해드리겠음. 전화 : 716–634–5839(저녁6시이후 연락 바람.)

입주하셔서 애기 봐 주실분 구함.
(Concord 지역)
전화 : 738–0050 (Mrs. 염)

매매

Restaurant 급매(Full Licensed)
좋은 위치와 좋은 조건(좌석 : 60여석), 좋은 전망
이나 사정에 의해 급매코져 함. 전화 : 536–0715, 368–9018

STORE 장비 급매
◉ Shelve (Wall 120 ft. Floor 144ft)
◉ Card Rack (20 ft. Card도 포함)
◉ 기타 선물용 유리 Rack
연락처 : 622–0323 Mr. Lee (6p.m 이후)

"봉학농장"
다음장소에서 9월21일(화)부터 매주 화요일 정기 배달하오니 신선하고 싼 채소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6시 : 2433 Finch Ave. W.
◉오후 7시30분 : 90 Paisley Blvd. W.
(1 Mile North Q. E. W. Missi. Ont.)
◉오후 9시 : 10 Willowridge
(마틴그로브 × 에그린톤)
전화 : 1–775–6256 Mr. 강.

(1)주소 찍는 기계
(Addressergrapher Multigrapher)
◉ 최고속도 시간당 5천개
◉ 철판 Plate 사용
◉ 전기로 가동
◉ 가동비 저렴
◉ 사용 간편
(2)Grapher Typer
Plate에 주소를 만들어 넣는 타자기
전화 : 533–2364

Variety Store매매(No Grocery)
3447 St. Clair Ave. E.(at Birchmount Rd.)
전화 : 265–9000

Large Variety Store for Sale

4,000 sq.ft. Excellent Location in ETOBICOKE
Yearly Turnover : over $800,000 + Other Incomes
from Lottery Sales, Video Machines.
Beautiful, clean, atractive store.
Must be seen to be appreciated.
private sale, please phone(after 10:30p.m.)
636–4338 (George)

※꼭 오셔서 보시면 압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4,800. 리스 : 3년+옵션 5년(Arbitration)
아스킹 : $39,000+스탁. 1000 Pape Ave.

Building for Sale. 982 Pape Ave.
Store & Apt. Suitable for any Kind Business.
전화 : 422–5029 (Mike)

벡커프렌차이스 매매
연락처 : 691–9414 (월–금 오후5시이후)

가정 형편으로 급매
VARIETY STORE. 좋은조건으로 팔고자 함.
전화문의 : 466–0309

이 기회를 놓치다니요!
Good Mortgage rate에 놀라실겁니다!
Variety Store & Detached Building(Bloor & Shaw)
Good Corner Property. Private Drive Way & Garage
다운페이 : $15,000~$20,000
장래 전망이 대단히 좋읍니다.
Call : Steve Politis now
Premore Real Estate 536–5600

Store for Sale("Lambton" Gift & Variety
1년된 New Plaza에 위치한 장래성이 대단히 좋은 지역.
4020 Dundas St.W.(at west of Scarlett Rd.)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 $3,000. 렌트 : $300(M)
전화 : 259–0323

Dry Cleaning Depot Store for Sale Lawrence & Eglinton area plaza안에 있음.
12 Flemington Rd. 전화 : 759–8658(R) 781–6774(B)

House for Sale (Private Sale)
완전히 집수리 끝낸 모퉁이에 위치한 집.
위치 : Annex(St.George & Bloor)
크기 : 4 Apt House(Legal fourplex). 아스킹 : $299,000
※집으로부터 연수입 $30,000/Year.
Call. Mr./Mrs. Roman 922–6888

Aurora의 최고지역
새로 수리를 끝낸 2 Bed Room Apt.가
이층에 있으며 일절 새장비로 갖춘 Variety Store.
Call : Mr. Jones 889–8654
W.R.Case Realty Ltd.

Private Sale(No agents)
성업중인 버라이어티 가게, 가스바
on main Highway. Toronto로부터 150mile 동북쪽에 있음.
연매상 : $600,000. 10% Financing.
연중내내 관광객들로 붐비는 지역임.
3 Apt. House 포함
아스킹 : $185,000
꼭 관심있으신분 반드시 영어로 문의바람.
Call (613)332–1312 Mr. Webster

Donuts Shop for Sale
개업한지 한달 되었으며 전망 대단히 좋음.
Good Lease 와 Cheap Rent.
Donuts Shop Business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요.
오셔서 장소를 보시고 의논해 보세요!
580 Queen St. W.(At Bathurst)

Coffee Shop in Medical Building
Long Lease & Low Rent.(Short hours)
call after 7:00p.m. 499–5217

벡커 프랜치아이스 매매
3731 Lawrence Ave. E.(로렌스×골프클럽·로드)

가게렌트

가게 세놓읍니다.(Dundas St. & George St.)
Corner에 위치한 바쁜 거리에 있음.
전화 : 763–3289, 493–9599

아파트렌트

방세 놓음. (College×Brunswick)1 Bed Room
전화 : 923–6236

3 Bed Room Apt. 세놓음
유지비 포함. $478/M.
지역 : Weston × Finch. 전화 : 742–6309

하숙 또는 독신자 방세 놓읍니다.
(단기 체류도 환영) ● 상세문의는 6시이후
전화 : 530–1046

집렌트

4 Bed Room 집 전체를 싸게 세놓읍니다.
(Brampton)
전화 : 247–3216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섭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가구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관 광

코라메 관광(주)(제일여행사 2층)
일년내내 관광을 함께·····
649 A Bloor St. W. 전화 : 535–0853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시계 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Albion)
전화 : 742–1205(B) 743–4842(R) Mr.마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렌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안)
각종 파티·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성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핀치)
전화 : 746–3458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5시 이후)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1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미술연구소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신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얼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배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사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 (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 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생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간이 모텔

방렌트 하실분.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